조선대학교 소식

Vol. 255 2020. 여름호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민립대학
조선대학교!

조선대학교는 1946년 9월에 7만 2000여 명으로 이루어진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가
교육으로 민족을 부흥시키기 위해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설립한 국내 최초의 민립대학입니다.
74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대학교가 창학 100주년을 향한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장미원 전경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엠블럼의 의미

2020년 대학 구성원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슬로건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의미를
조선대학교 본관 이미지와 통합하여 디자인한 것입니다.

점으로 구성된 패턴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우측 상단 4개의 별은 우리 대학 학생들을 상징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창학 100주년을 향해 발전해 가고,
더불어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스타(Stars)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하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류시천
(미술체육대학장 / 디자인공학과 교수)

2020학년도 조선대학교 상반기 주요 성과

호남·제주권 1위 명문 사학의 긍지!
조선대학교!

01 2020 네이처 인덱스 순위 **호남·제주권 사립대학 1위**(연구경쟁력 기준)

02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최우수 등급(A등급)** 획득(44억)

03 2020년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사업 선정**

04 고교교육기여대학 13년 연속 선정, **국비지원금 호남·제주권 사립대학 1위**(12억)

05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 개별강좌' **전국 최다** 선정

06 **9년 연속**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사업 선정

07 간호학 교재, **몽골 국정교과서 채택**(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개발)

08 과기부 '큐브위성경연대회' **지역대학 유일 선정**

09 체육/예술 교육기부 호남·제주권 거점대학 **3년 연속** 선정

10 첨단에너지공학과, 인공지능공학과 **신설 승인**

CONTENTS

CU Hero
우리 대학 코로나19 영웅

12 Amazing! 세계가 놀란 DT 선별진료소 고안
– 의과대학 93학번 김진용 동문
14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속 조선대학교'
16 코로나19 속 슬기로운 대학생활
20 조선대병원의 달빛동맹

CU People
자랑스러운 조선大인

26 광주 Swag! 랩으로 노래하는 5·18민주화운동 힙합동아리 Free$t.
28 "취업준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학 선배들이 알려주는 취업준비 TIP
32 명사인터뷰 _ 채양기 금호타이어 관리총괄사장(법학과 71학번)
34 명사인터뷰 _ 평생교육원 김병조 교수

CU News
38 조선대학교 소식

CU Column
조선대학교 칼럼

52 학생 칼럼 _ 안용현 정치외교학과 2학년(조대신문 기자)
53 교수 칼럼 _ 김영식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54 언론인 칼럼 _ 김인수 광남일보 부국장
56 언론인 칼럼 _ 강현석 경향신문 차장
58 교육 칼럼 _ 정훈탁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61 2021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73 조선대학교치과병원 소식
74 조선대학교병원 소식
76 백년대계의 밑거름_발전기금 소식

2020. vol. 255

발행인 민영돈 조선대학교 총장 **발행월** 2020. 7.
발행처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 홍보팀(062-230-6490)

기획·편집 김화선 **사진** 서일환 **디자인** 김지영
캘리그라피 황현서 **표지사진** 조선대학교 홍보대사

우리 대학
코로나19 영웅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써 온
조선대학교 전 구성원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이 원래의 일상으로 되돌지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조선대학교 소식지 여름호는
2020학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의 '코로나19 현장'을 조명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입니다.

Amazing! 세계가 놀란 DT 선별진료소 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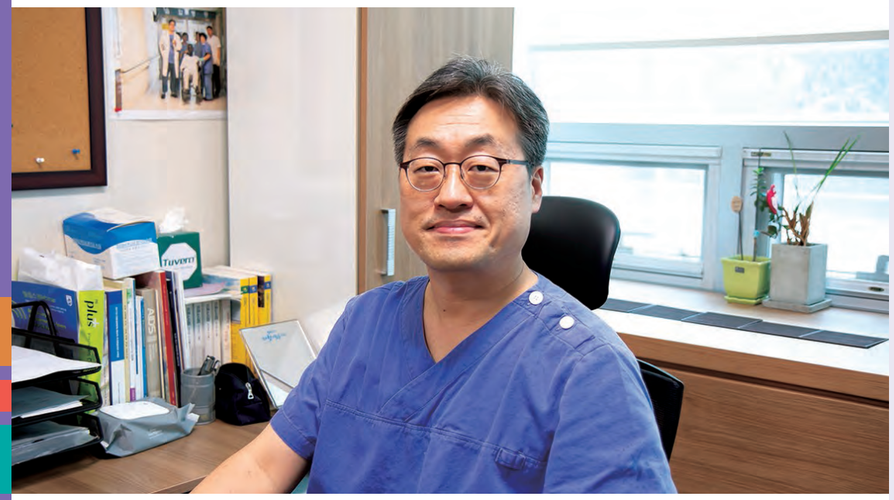
김진용 동문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93학번

대학시절 다양한
독서·교양수업·동아리 활동

혁신적·창조적으로 생각하는 힘 길러

"앞으로도 코로나19 화두
'공조능력(Solidarity)' 발전시키고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혁신적인 코로나19 방역법이 여럿 시도됐다. K-pop을 본뜬 'K-방역'이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다.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승차검진 선별진료소', 일명 '드라이브스루(drive through, DT) 선별진료소'다. 전 세계 외신들은 직접 한국을 방문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의 현장을 목격하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93학번 김진용 동문의 창조적 아이디어로 탄생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감염내과 과장을 맡고 있는 김진용 동문은 조선대학교 재학시절 전공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관심을 두고 탐색해왔다. 이 점이 평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산이 됐다고 그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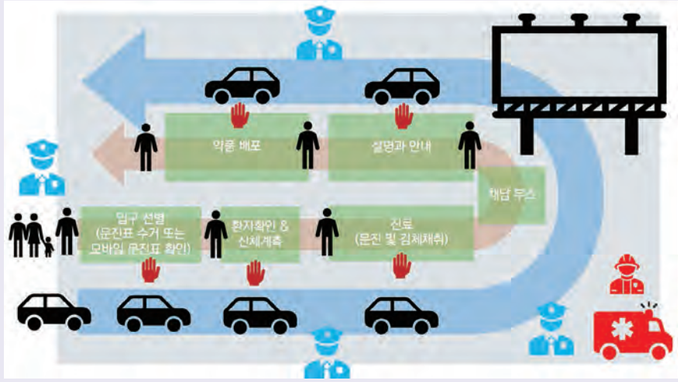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코로나19 방역에 큰 역할을 하신 김진용 동문을 만나 뵈어 반갑습니다. 먼저, 해외에서도 이슈가 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착안했나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대한감염학회 신종감염병위원회 정책 태스크포스(TF)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포함해 감염내과, 진단내과 분야에 있는 30~40대 젊은 전문가 8명이 활동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발병 이후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발적으로 만들었어요. 거창한 모임이라기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는 대화의 장입니다. 감염 환자를 실내가 아닌 밖에서 최소한의 접촉으로만 진단하면 추가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고, 20일에 이재갑 교수가 대구시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카카오톡 방에서 '야외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빠르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플루엔자에 대비해 드라이브스루로 진단과 백신을 배포하는 모델을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21일 새벽 3시, 스탠퍼드 대학의 논문을 참고해 우리나라 코로나19 방역 현장에 적용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4시간 만에 간략한 개념도를 작성했죠.

아이디어가 공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빠른 시간에 착착 진행됐네요.

제가 제안했던 아이디어가 이재갑 교수에 의해 질병관리본부와 감염전문가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앱에 올라갔어요. 다음날 권기태 칠곡경북대병원 감염관리실장님이 연락 와서 몇 가지 물어보고 하루 만에 진료소가 개소됐습니다. 사안이 급한 만큼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어요.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기에는 승차검진 진료소가 전국 곳곳에 70여 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와 협력해 얻은 시너지 효과도 컸어요.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사업단'에 참여하면서 의료 외에 수학, 건축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했는데,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이번에도 성민기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설계에 조언을 주는 등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됐습니다.



▲ 코로나19 선별검사센터 시안

고향인 전남 함평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광주석산고를 거쳐 93학번으로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감염내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인천에 있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전공의(레지던트) 시절에 다양한 분과들을 체험했는데, 감염내과 주치의를 할 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감염내과 환자들은 중환자들이 많은데 완치되어 퇴원 차트에 '치료 종료'라고 기록하는 쾌감이 새로웠습니다. 내과의 다른 분과들은 당뇨 등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에 종료점이 없거든요. 학창시절 미생물학의 임용 교수님, 약리학의 유호진 교수님의 수업에 빠졌는데, 이 두 학문이 감염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때 들었던 수업이 감염내과 의사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선생님의 대학시절이 궁금합니다. 대학생 시절 전공 외에 동아리 등 인상적인 대외활동이나 특별한 추억이 있나요?

대학교는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조선대학교는 호남 최대 규모의 민립대학교이기 때문에 캠퍼스에서 다양한 학문을 접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최적의 공부 장소였습니다. 저는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중앙도서관에서 공부하며 다른 분야의 장서들을 읽고, 전공 외 교양과목을 청강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한 의과대학 문학동아리 '동맥'에서도 활동했어요. 의학을 벗어나서 인문적 소양을 기르는 원동력이 당시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학업을 하는 와중에 문학의 밤, 시화전 개최, 교지 편집까지 하며 나름 열심히 활동했죠.

대학시절 전공 외에 다양한 학문을 접해 뛰어난 창의력을 갖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익힌 소양들이 지금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교지를 아래아한글 3.0 버전으로 편집해 보면 문서작업의 달인이 될 수 있다고나 할까요? 어릴적 고향에서 가장 먼저 생긴 컴퓨터학원에 다녔고, 이후에도 컴퓨터 조립이 취미였을 정도로 IT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번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도안을 그리는 것도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가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교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싶은 말은?

대학교(university)는 우주(universe)입니다. 본인이 전공하는 과목만 열심히 해서 살아남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대학에서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배우는 분들이 앞으로 21세기에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성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고 협력해야 하겠지요. 이번 코로나19 대응의 화두인 '공조(Solidarity)' 하는 능력을 최대한 살려보려고 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코로나19 속 조선대학교**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동안 조선대학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펼쳐 왔는지 사진으로 살펴 봅니다.

코로나19 대응본부

지난 1월부터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 총괄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본부는 현재까지 실무자 회의 및 총학생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상황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그린빌리지 간식전달

3월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들은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기숙사 그린빌리지에 2주간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린빌리지를 관리하는 모든 직원들은 방호복을 착용하고 유학생들에게 식사 및 식료품을 전달했습니다.

온라인 강의 제작

교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좌로 진행했습니다.

실험실습과목 진행을 위한 발열체크, 강의실 소독, 현장점검, 교내식당 가림막 설치

5월 12일부터 실험·실습과목 대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대학 건물의 출입구를 한 곳으로 통제하고, 발열체크를 진행했습니다. 강의실 및 실습실, 생활관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통해 집중 관리했으며, '솔마루' 등 교내식당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투명 칸막이를 설치했습니다.

코로나19 속 슬기로운 대학생활

코로나19 사태로
조선대학교의 2020학년도 모든 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됨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생활도 달라졌습니다.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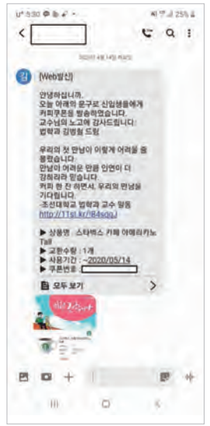
슬기로운 대학생활

"만나지 못해 아쉬워… 티타임 갖고 힘내자"
법학과 등 신입생 커피 기프티콘 발송

'코로나19로 달라진 삶' 공모전 성료

취업학생처, 비대면 학생지원 호응

● "커피 한잔하면서 소중한 만남 기다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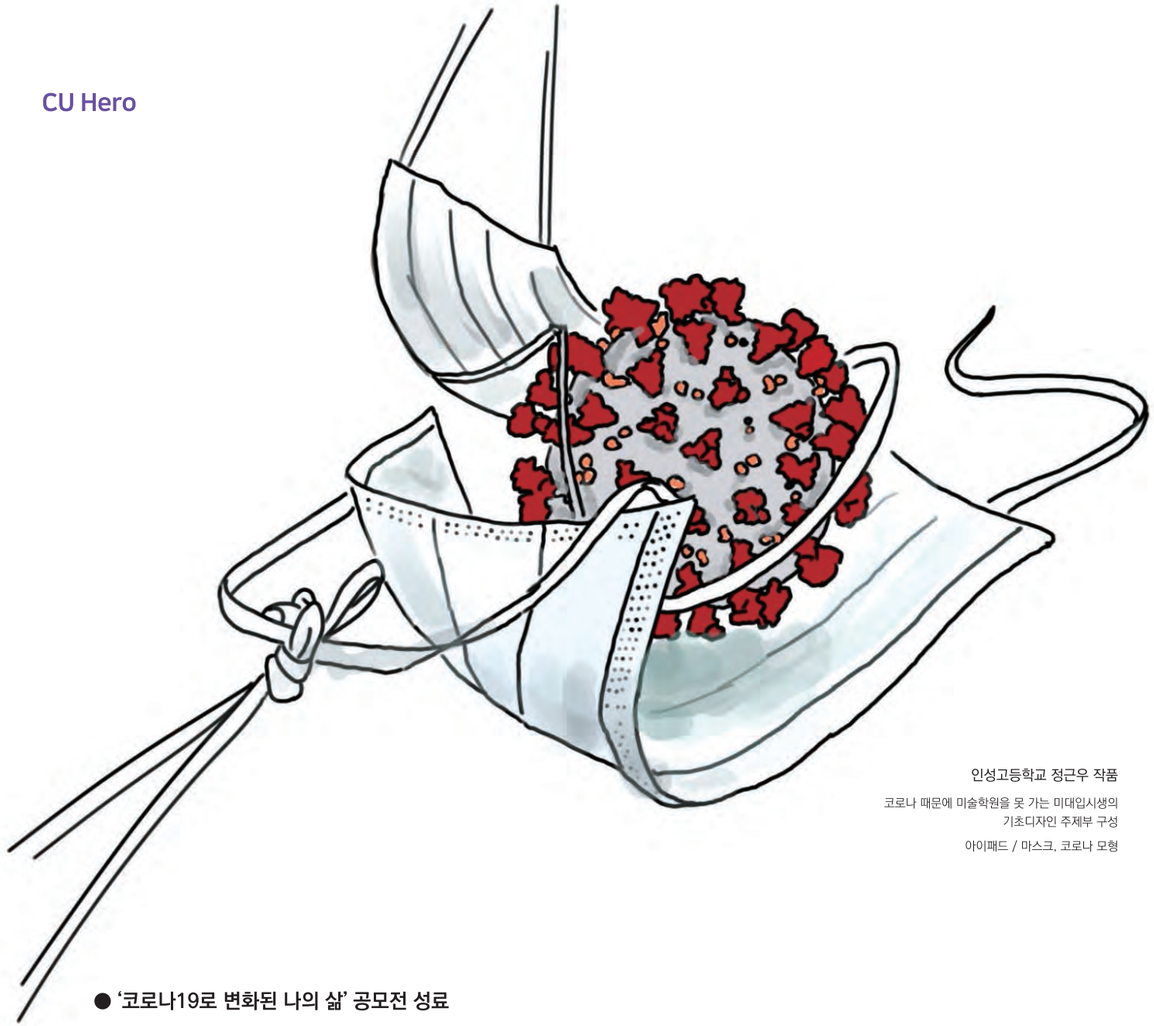
법사회대학 법학과, 공공인재법무학과가 신입생 16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강의 시작과 더불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식, MT 등 모든 행사가 취소된 상황이라 교수진이 신입생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으며, 지도교수 상담도 어려웠다.
이에 해당 학과는 지도교수 비대면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신입생들에게 입학 축하 메시지와 함께 커피 기프티콘을 발송했다.

● 홍보대사 모집 과정도 비대면

조선대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 1학기 제23기 홍보대사 '푸른나래' 모집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1차 서류 합격자들은 2차 전형에서 대면 면접 대신 개인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였으며, 이후 전화 면접이 이뤄졌다. 지원자들은 춤, 노래 등을 영상에 담으며 다양한 개성을 표출했다.

● 비대면 학생지원 프로그램

원스톱학생상담센터는 지난 3월 30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생긴 재학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화를 통한 비대면 상담, '코로나19 극복 마음돌봄 tip' 안내, 명상전문가가 운영하는 명상 앱 무료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학일자리센터는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는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로설계 워크북(Work-Book)'을 자체 제작하여 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토대로 취업 관련 컨설팅을 전화 상담으로 진행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 강의 학습 진도를 주차별로 개인별 모니터링했으며, 청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인공지능 실시간 자막 제공 보조공학프로그램 제공, 시각장애 학생들에게는 '장애학생 도우미'를 배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인성고등학교 정근우 작품

코로나 때문에 미술학원을 못 가는 미대입시생의
기초디자인 주제부 구성

아이패드 / 마스크, 코로나 모형

● '코로나19로 변화된 나의 삶' 공모전 성료

교원양성대학 시민교육 역량강화사업단이 '코로나19로 변화된 나의 삶'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2020 특별한 봄을 만들다!'를 부제로 3월부터 4월 12일까지 열렸으며 총 69명, 61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참가대상은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재학생, 조선대학교 전체 구성원과 광주·전남·제주지역 초· 중·고등학생이며, 공모 분야는 사진, 그림, 에세이, UCC로 진행됐다.

사업단은 초· 중·고등학생 분야 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을 선정했으며, 조선대학교 구성원 분야 최우수상 4팀, 우수상 23팀, 장려상 22팀을 선정했다.

초·중·고등학생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성고등학교의 정근우 학생은 코로나 때문에 미술학원을 가지 못하는 미술대학 입시생의 아쉬움을 아이패드로 그린 그림 '마스크, 코로나 모형'으로 표현했다.

구성원 분야 최우수작은 지구과학교육과 김민지, 화학교육과 윤은애·김승현·김소현, 음악교육과 김연수, 지구과학교육과 장희윤 학생이 차지했다.

음악교육과 김연수 학생은 코로나19로 모임 등 사회 활동이 잠시 멈춘 일상에서 가족과 보낸 소중한 시간을 직접 그린 짧은 만화와 글로 보여주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현주 사업단장(사범대학 화학교육과)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지(STOP)'가 아니라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발전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공모전을 기획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진행 소감을 밝혔다.

음악교육과 김연수 작품

조선대병원의 아름다운 달빛동맹

올해 초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부터 조선대학교병원은 24시간 '코로나19 비상체제'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치료를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지난 2월 대구·경북지역이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으로 심각한 병상부족 현상을 겪고 있을 때 "환자를 보내달라"며 가장 먼저 지원의 손을 내밀었다. 병상 나눔은 진정한 '달빛동맹'의 표본이 됐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환자들은 우리 지역의 환자들과 달리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중증을 보였다고 한다. 조선대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전문의를 만나 긴박했던 상황을 들어봤다.

먼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선대병원은 지금(6월 초 기준)까지 몇 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했나요? 01

2월 6일 22번 확진환자가 처음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총 13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의심환자까지 포함하면 35명이 국가지정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았고, 선별진료소는 719명, 응급실, 외래, 입원병동의 566명을 포함하여 총 1285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결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02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환자들은 대부분 경증 환자들이었고, 환자 수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 중에 대구지역 병원에서 병상이 부족해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에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으로서 당연한 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조선대병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오신 코로나19 환자들 중 상태가 심각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03

대구·경북지역에서 환자가 이송됐는데, 오자마자 기관 삽관을 급하게 해야 했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해서 호흡조차 제대로 못하셨으니까요. 병상이 없어 댁에서 대기하며 필요한 처치를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총 5명이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중 3명이 중증 상태였으며, 이 중 2명에게는 내원하자마자 기관 삽관을 시행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다행히 기관 삽관까지는 가지 않고 비침습적 환기 치료로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환자 중에 유독 기억에 남는 분이 있나요? 04

5월 25일에 79세 어르신이 병원에 오신 지 석달 만에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이분 역시 오자마자 기관 삽관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폐결핵과 폐렴을 앓으셨던 분이어서인지 병세 호전이 더뎠습니다. 병원에서는 감염내과를 비롯해 호흡기내과,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의료진까지 나서 레벨D 방호복 차림으로 24시간 밀착 치료에 매진했습니다. 폐 합병증으로 세 차례 객혈이 반복되어 치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상태는 호전됐어요. 퇴원을 앞두고 24시간 간격으로 진행한 유전자 증폭(RT-PCR) 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와 다행히 퇴원하셨습니다. 88일 최장기 입원 환자였습니다. 고향의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길에 의료진의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요양병원에 도착하셨을 때는 잘 도착했다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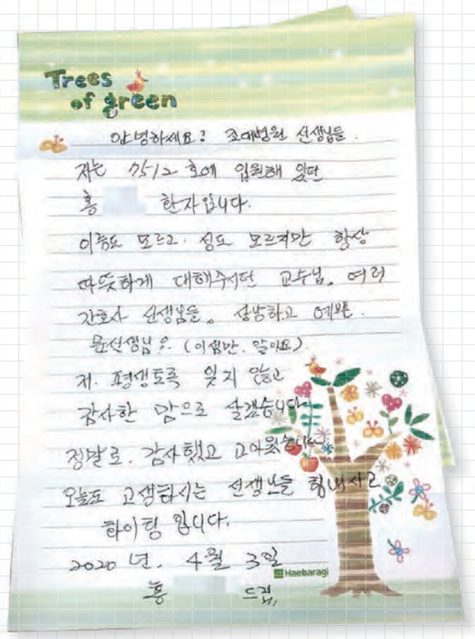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예방수칙을 지키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당부하실 말씀이 있나요? 05

정부에서 알려준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개인의 면역에 따라 증상이 상이합니다. 특히, 호흡기관 쪽에 기저질환이 있다면 크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관리로 면역력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약물 중 무엇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은 어떤 것도 치료제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방수칙을 잘 실천하고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대병원 감염내과 서준원 전문의

“타지 병원 두려웠지만, 가족처럼 대해 준 의료진 덕분에 호전”

대구 코로나19 환자 감사 편지



대구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경북 김천의료원에서
조선대병원으로 이송된 홍씨(여, 61세)가 지난 3월 26일 퇴원 후 조선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중증환자였던 홍씨는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6일만에 완치돼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후 홍씨는 4월 3일 감염내과 외래 진료를 위해 조선대병원을 다시 찾았고,
입원했던 75병동을 방문해 과일과 함께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지만 항상 따뜻하게 대해 주시던 교수님, 여러 간호사 선생님들”로 시작한 편지에서
홍씨는 “평생토록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며 의료진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선대학교병원 의료진들이 코로나19 방역과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CU People

자랑스러운 **조선大인**을 **만납니다**

조선대학교는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교육으로 이루어진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조선대학교 25만여 동문 및 재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탁월한 성과를 CU PEOPLE로 확인하세요!

오월 광주의 Swag!
랩으로 노래하는 5·18민주화운동

힙합동아리 Free$t.

광주CBS가 최근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으로 '니들이 5·18을 알아? 랩으로 노래하는 5·18민주화운동'을 제작했다.
이 특집 프로그램에 조선대학교의 힙합동아리 Free$t.(프리스트)가 참여해 화제가 됐다. 이번 프로젝트 음악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감각적인 자작 랩에 장년층에게 사랑받는 트로트가 곁들여진 독창적인 창작물이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Free$t.가 참여한 이번 프로젝트는 세간의 눈길을 끌며 언론에도 수차례 보도됐다. Free$t.의 음악은 유튜브 채널 '광주CBS'에서 감상할 수 있다.

힙합동아리 Free$t.를 소개해주세요.

Free$t.라는 이름의 뜻은 Free street의 줄임말로, 직역하면 '자유로운 거리'라는 뜻입니다. Free$t.는 초보부터 프로 예술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동아리 회원들이 활동 중이며, 서로의 음악적 색깔, 특색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음악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학기말 공연 및 연말 공연, 초청 버스킹 및 자발적 버스킹, 단체곡 작업 등이 있습니다. Free$t.의 콘텐츠는 유튜브 검색창에 freest라고 검색하고 채널에 들어가면 감상할 수 있습니다.

▲ '랜선 장미축제' 홍보 동영상인 'Always bloom' 촬영 후 단체사진

광주CBS 특집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광주CBS 김지희 PD님이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Free$t.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연락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세대 간 온도 차가 있습니다. 광주CBS에선 온도 차를 줄일 수 있는 소재로 음악을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도 청년층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랩과 장년층에게 사랑받는 트로트를 선택했습니다. 의미있는 도전인 것 같아서 팀원들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Free$t.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작한 음악은 기존에 우리가 알던 음악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대학교 흑인음악동아리 SUM와 함께 진행했는데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5·18과 연관된 계엄군, 시민군, 극우세력 등 배역을 맡아 그들의 입장에서 랩을 주고받는 형식이에요.
1부에서는 5·18 주요 사건을 시간 흐름에 맞춰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립을 랩 배틀(rap battle)로 풀어냈습니다.
2부에서는 여전히 진행 중인 5·18 관련 논란을 1부와 같이 계엄군과 시민군의 상반된 목소리로 구현했어요. 망언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현대 극우세력도 표현했습니다. 교차되는 랩과 트로트 음악 사이에는 5·18을 경험하고 고초를 겪은 이들의 생생한 증언도 삽입됐고요. 트로트 부분에선 5·18에 서린 한과 설움이 담겨 있어요.

광주시민으로서 계엄군과 극우세력의 역할을 맡아 몰입하기가 쉽지 않았겠네요.

계엄군의 역할에서는 그나마 "상사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이 이해가 가지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5·18민주화운동을 희화화하는 극우세력의 입장을 가사로 쓰는 것에는 큰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보도기사에 달린 극우세력들의 댓글을 읽는데 화가 치밀더군요.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배운 점도 많았겠네요.

광주에서 살면 5·18은 많이 알고 있는데, 대부분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 프로젝트로 5·18이 일어난 배경, 오월공동체의 위대함, 극우세력들의 황당한 역사왜곡 등을 폭넓게 배웠습니다.

작곡 과정도 궁금해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떤 느낌을 담고자 했나요?

조선대학교에도 민주열사들이 있잖아요. '당시 선배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군인들과 맞서 민주주의를 외쳤을까?' 라는 고민을 하니 긴박하고 숨 가쁘게 달리는 비트가 떠올랐어요. 5·18의 아픔을 표출한 마지막 파트에서는 '붉은 꽃'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번 '랜선 장미축제'에서도 큰 활약을 펼쳤다고 들었습니다.

광주CBS 5·18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우리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19로 장미축제를 취소하는 대신 '랜선(온라인) 장미축제'로 장미원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영상의 주인공으로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우리 대학의 아름다운 장미원을 위한 음악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장미를 가까이에서 마주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도 잠시 멈춰있지만, 힘든 시간이 지난 후 더 아름다워질 조선대학교의 장미와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기다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은 조선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 이렇게 했어요”

우리 대학 선배들이 알려주는 **생생한 취업준비 TIP!**

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 소식지는 대학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희망 기관 및 기업체 취업에 성공한 우리 대학 동문을 찾아가 취업준비에 관한 조언을 들어 보았습니다.

● 조선대학교 취업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내용	담당팀	운영 기간
CU골드클럽	취업준비생을 모집·선발하여 분반별(공기업반/대기업반/금융반/지역인재7급반) 스터디 그룹 지원 및 취업 프로그램 제공. 분반별 스터디룸 배정, 활동비 지원, 취업 멘토링(동문) 등	취업전략팀	학기 초
CUCU 멘토링	우리 대학 선배를 멘토로 초청하여 취업 성공 노하우와 기업 및 직무정보 제공.	취업전략팀	매년 11월 중 (코로나19로 변동 가능)
취업성공 사관학교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서 작성과 NCS 학습, 면접 등 전반적인 취업준비 과정을 실습과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훈련.	취업전략팀	2021학년도 기간 미정
입사지원서 뽀개기	입사지원서 작성법 특강, 지원서 온라인 첨삭 및 컨설팅, 개인별 인사전문가 코칭(1:1) 진행.	일자리 지원팀	학기 초
면접 뽀개기	기업별 채용동향 및 면접트렌드, 유형별(PT·토론·집단면접 등) 면접 전략 등 특강, 실전훈련을 위한 모의면접 진행.	일자리 지원팀	학기 초
취업전략팀 062-230-7573 / 일자리지원팀 062-230-7575			

TIP 01

박진영

- 경제학과 12학번
- 2019년 상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전직

목표 기업·준비 방향 미리 설정

저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전공과 상관없이 코레일 운전직(철도 기관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한 저에게는 다소 이례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설령 지원한 직무와 관련된 경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지원한 기업에 대한 관심(주요 이슈·중점 사업 등)을 적는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본인이 의도한 질문을 이끌어 낼 수 있어 효과적입니다.

NCS 공부는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CU골드클럽〉에 참여하면서 NCS 스터디 그룹에서 시작했습니다. 기본서를 통해 자주 출제되는 분야 위주로 기본 실력을 쌓았습니다. 채용이 시작되면 해당 기관의 봉투모의고사를 풀며 실전에 대비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면 결국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어디를, 어떻게 가야할지 몰라서 중요한 시기를 놓칩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목표 기업과 준비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목표 기업과 취업준비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IP 02

이동훈

- 전자공학과 13학번
- 2018년 하반기 동원F&B 식품유통영업

나만의 키워드를 담은 자기소개서

회사에 지원할 당시 자기소개서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강점을 키워드 해시태그로 표현해 3가지를 제시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공이 지원한 식품영업직무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주로 대외활동 경험을 강조하였습니다. 제 자신을 #소통왕 #넘치는 체력왕 #프로계획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소통’이라는 키워드에서는 대기업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프로모션 TFT(Task Force Team) 팀원으로 실제 실무 직원들과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설명하였습니다. ‘체력왕’이라는 키워드로는 대학생 때 동아리, 대외활동, 공모전, 자격증, 학점 관리를 동시에 해냈을 만큼 체력이 좋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프로계획자’는 동아리에서 총무를 맡으며 1년 동안 하면서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수치화하여 드러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부터 〈CU CAREER PLUS〉, 직무탐색과 분석(NCS 기반) 강의를 들으면서 기업 분석 방법, 이력서 작성, NCS 기초를 배웠고, 기업 탐방, 모의 면접, 모의 인적성 및 NCS, 기업분석 공모전, 이력서 공모전, 경영 직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TIP 03

이영진

- 영어교육과 13학번
- 2019년 하반기 광주도시철도공사 고객만족팀

굵직한 인턴 경험·엄격한 자기관리

자기소개서에서 인턴 경력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인턴 직원에게는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는 회사나 부서가 많은데, 제가 속했던 회사의 부서에선 인력이 부족해서 인턴임에도 중요한 업무를 경험해볼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자기소개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했습니다.

저는 자기관리가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는 무조건 NCS 공부를 했 습니다. 일명 '출석체크스터디'(공부시간을 서로 인증하는 스터디그룹) 참여를 통해 오전에 NCS를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정해진 공부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벌금 5,000원을 내야 해서 공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NCS 스터디그룹도 참여했습니다. 경험상 전체적으로 실력이 좋거나, 모르는 부분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팀원이 있는 스터디그룹을 선택하는 것이 실력 향상에 좋습니다.

대학의 취업프로그램에서는 자소서 면접 특강과 자기소개서 및 면접 상담, 기업별 인적성 모의고사가 도움이 됐습니다. 그 외 부족한 점은 유튜브 등 공개 콘텐츠를 이용해도 충분합니다.

TIP 04

진경현

- 전자공학과 13학번
- 2019년 하반기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엔지니어

충실한 전공 공부, 엔지니어에겐 필수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대학에서 했던 전공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공대생이라면 실험수업 경험이 실제 업무에 큰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엔지니어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평소 실험수업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습관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도 이 같은 기술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조한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경험 등 남들보다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어도, 충실하게 수행했던 교내 활동을 내세우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적성 시험은 GSAT(삼성직무적성검사)로 준비했고, 하루에 3~4시간 정도 공부했습니다. 수리영역 같은 경우는 늘 틀리는 문제를 틀리기 때문에 철저한 오답 정리가 필수입니다.

저는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입사 희망 기업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추천합니다. 기업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희망 기업을 정하고 그에 맞는 취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업분석대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정확히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TIP 05

채유나

- 응용화학소재공학과 13학번
- 2019년 하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업, 아무것도 모른다면?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답

저는 전공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관련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활동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전공과 다른 진로로 나아가고자 할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는 〈CU골드클럽〉에 참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원금과 스터디장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CU골드클럽〉에서는 조별로 현직자를 멘토로 정해주는데, 제가 참가할 당시 팀의 멘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하는 졸업생이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멘토님이 자기소개서부터 면접까지 피드백을 주셔서 입사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입사지원서 뽀개기〉는 자기소개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참여하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면접 뽀개기〉는 면접 관련 태도나 준비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2019년 상반기 처음 필기에 합격했을 때, 갑작스럽게 면접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허무하게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공채 면접에서 〈면접 뽀개기〉로 잡아놓은 기초가 도움이 됐습니다.

이밖에 〈CUCU 멘토링〉을 통해서는 다양한 공기업, 금융권 현직자들과 1:1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NCS 사관학교〉를 통해서는 NCS 기본기를 다지고자 할 때 참여하면 좋습니다.

TIP 06

최성훈

- 건축공학과 11학번
- 2019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조달청 근무

기회는 단 한 번! 선택과 집중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은 학교장이 선발한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인사혁신처에 추천하면 채용절차를 통해 7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추천 절차가 필요한 만큼 일반 공무원 시험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점이 특징입니다.

지역인재 7급 시험은 기회가 1회(현행 기준) 뿐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지역인재 7급 시험 지원자격은 졸업성적 10%, 한국사 2급 이상, 토익 700점 이상입니다. 1~2학년 때부터 학점관리와 선발요건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준비기간을 정하여 놓고 계획에 따라 도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약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한국사 3개월, 토익 4개월, 학점관리 4년, PSAT(공직적격성테스트)과 헌법 시험공부에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PSAT과 헌법 시험공부는 대학에서 운영하는 〈지역인재 7급 준비반〉에 참여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PSAT은 노력으로 점수가 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꾸준히 공부하면 오릅니다. 〈지역인재 7급 준비반〉 참여로 대학에서 인터넷강의 비용을 지원하여 주어서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털사이트에 지역인재 7급 시험 카페가 있는데,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사원에서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 조선대 출신 경영전문가”

채양기 금호타이어 관리총괄사장

법학과 71학번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채양기 동문이 지난 5월 19일 금호타이어 관리총괄사장으로 취임했다.
채양기 동문은 1978년 현대자동차에 입사했다. 외자부와 할부관리부 등에서 일하다 1999년 재무관리실장(이사 대우), 현대카드 부사장, 2005년 현대차 기획관리본부장을 거쳐 같은 해 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현대오토넷 인수와 현대글로비스 상장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주도해 경영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채 신임 사장이 금호타이어와 연을 맺은 것은 2018년 7월 사외이사로 선임되면서다. 금호타이어는 재무·회계 분야에서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채 동문을 관리총괄 사장으로 선임했다.
채양기 동문은 자신을 ‘뼛속까지 조선인’이라고 불렀다.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를 거쳐,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표 ‘경영전문가’, 채양기 동문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최근 금호타이어의 관리총괄 사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18년부터 금호타이어 사외이사로 활동하시는 등 금호타이어에 대한 애정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신임 사장으로서의 포부를 들을 수 있을까요?

금호타이어는 광주의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는 큰 축입니다. 광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베트남, 중국, 유럽, 남미 등 전 세계에 8개 타이어 생산 공장, 9개 법인, 12개 해외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국내 직원만 약 4770여 명에 이릅니다. 저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이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금호타이어의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 올리겠습니다. 세계시장에서 금호타이어의 품질과 기술력을 확실히 각인시켜 브랜드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대학생활과 청년시절이 궁금합니다. 법학 전공인 법 계열로 진출하지 않고 일반 기업에 취직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학시절 법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군단에 소속되어 있었고, 해군에서 법무장교로도 복무했습니다. 전공을 생각하면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야 했죠. 하지만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공력이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비효율적인 일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길을 고민했습니다. 당시에는 기업 채용에서 학사장교 출신들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대기업 취업으로 방향을 잡고 현대자동차 공채에 도전해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 입사해 재경사업부장(부사장), 현대카드, 캐피탈 총괄부사장, 현대·기아차 기획총괄본부장(사장)까지 역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초고속 승진’인데,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회사생활에서 돋보이기 위해선 회사의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는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는 술을 잘 마시지 못합니다. 대신 저는 회사에서 발생하는 어렵고 힘든 문제를 먼저 나서서 해결해 왔습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는 직원들 틈에서 상사의 눈에 띄기 위한 차별화 및 생존 방식이었던 것이죠. 성과를 낼 때마다 회사에서는 호평을 해주었고, 감사하게도 비교적 일찍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딛고 큰 성과를 냈던 대표 경험이나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면?

신입사원 시절 자동차 판매 실적에서 전체 3위를 해서 회사로부터 미국여행 보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업부서가 아닌 관리부서에도 어느 정도의 판매실적을 요구하던 때였는데, 관리부서 직원이라 고객 관리도 안 되어서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고객들과 부딪혀보니, 고민하는 분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기지가 생기더군요. 영업사원이 아니지만 영업능력을 갖게 된 것이죠.
어려운 일이라도 끈기 있게 밀고 나가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과정이 버겁더라도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성과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기업의 임원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조선대학교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

회사에서 3년 동안 채용 면접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요즘 면접을 위해 학원까지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면접위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일시적으로 자신을 꾸며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답변에 깊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때면 갖은 고생으로 면접까지 올라온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대학시절에 학업에 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의 기술도 익혀 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적절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평소에 생각과 사상은 독서로 채우고 대화하는 방법은 토론을 통해 배워나가길 추천합니다.

“
코미디언에서 한학자
명심보감 가르치며 함께 웃어요.
”

김병조 평생교육원 교수

조선대학교에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를 꼽자면 김병조 평생교육원 교수를 빼놓을 수 없다. “지구를 떠나거라” 등 1980년대를 거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 쯤 들어봤을 만한 숱한 유행어를 남긴 유명 코미디언이다. 그러나 2020년 김병조씨는 1997년부터 23년째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의 ‘명심보감’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한학자(漢學者)가 되어 있었다.
김병조 교수는 매년 100여 명의 수강생이 듣는 조선대학교의 스타 강사다. 김 교수는 자신이 한학자가 된 것이 필연(必然)이었다고 말했다. ‘품격있는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다는 김병조 교수가 어떤 배경으로 한학자의 길로 들어섰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아직도 코미디언으로서 전성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데뷔가 1975년이니까 그동안 긴 사랑을 받았다. 군 연예대에서 복무하고 제대를 하는데, 부대 간부가 고생했다며 자매결연을 맺고 있던 TBC 동양방송에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테스트를 받고 전유성 등 개그맨 1세대들이 출연하고 있던 우리나라 최초의 개그 프로그램 ‘살짜기 옵서예’에 출연하게 되었다. 그게 데뷔였다. 그 뒤 1980년 MBC로 옮기게 되고 많은 유행어를 남기게 됐다. 코미디 프로그램도 ‘격조있는 방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웃음 소재도 하회탈춤 같은 우리 문화에서 찾으려 애썼다.

코미디언과 한학자는 인식의 차이가 큰데, 조선대학교에서 명심보감을 강의하게 된 계기는?

kbc광주방송에서 노래자랑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때였다.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연기와 코미디를 한 학기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런데 강의와 개그를 수업으로 가르친다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명심보감 강의를 하겠다고 했다. 그게 받아들여졌다.

한학(漢學)과는 어떤 인연이 있나요?

고향이 장성이다. 광산(光山) 김가 선비 집안이었다. 아버지가 한학을 했고, 서당 훈장을 한 덕에 자연스럽게 한학을 습득했다. 집안이 어려워 금전적인 학습지원은 충분하지 않았지만, 선비 가풍 속에서 살다보니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다. 학창시절에는 모범생으로 통했다. 코미디언일 때도 한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었다.

연예인이 된 모범생이라니……. 요즘에도 흔치 않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학창시절 언변이 좋아서 웅변대회, 행사 사회자나 응원단장을 맡아 활약했다. 공부하는 것도 좋아했지만, 무대에 올라 끼를 펼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즐겼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 딜레마에 빠졌다. 집안을 생각해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연극영화과를 정말 가고 싶었다. 선생님께서 연극영화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라는 결론을 내려 주셨다.

한학 중 명심보감을 가르치는 이유는?

명심보감 청주판을 완역해 책으로 출간한 일이 있다. 명심보감은 1393년 중국에서 범립본이 썼다고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1454년 청주에서 ‘청주판 명심보감’으로 출판됐다. 계유정난 시기 청주목사 황보공 등 5명이 의기투합해서 도덕을 바로 세우고자 만든 책이다. 일반적인 명심보감보다 풍부한 내용이 특징이다. 명심보감은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성현의 말씀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답을 준다. 연구자로서 명심보감의 지혜를 쉽고 재밌게 가르치고 싶었다.

코미디언 출신 한학자의 강의가 어떨지 궁금하다. 수강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코미디언이 가르치는 한학은 어떨지 궁금해서 수강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다. 강의와 공연은 목적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성질은 같다고 생각한다. 강의안이 대본이고 수강생들이 관객들이다. 강의를 한 편의 공연을 하듯 유쾌하게 진행하려 한다. 유쾌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현의 말씀을 익힐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강의이다. 코미디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방송인과 한학자, 둘 중 어떤 삶에 더 만족하는지요?

방송을 많이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과 학문에 갈증을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지금은 제자리를 찾은 것 같다. 공부한 것을 이웃과 나누는 일 자체가 축복이고 행복이다.

CU NEWS

조선大의 소식을 전합니다

조선대학교는
대학혁신과 지속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여
백년대계의 토대를 세우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발자취와 성과를 CU NEWS로 전해드립니다.

조선대 소식 _
국비사업 선정 소식

교육부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 위탁기관〉 2년 연속 선정

국비 8450만 원 확보

조선대학교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20년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 위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주요국가 학생 및 토픽우수자 초청연수'는 한국어능력시험(토픽, TOPIK) 우수 외국인 대학생과 한국어과정이 개설된 외국 고교의 우수 학생을 초청하는 연수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4월 사업 대상 대학으로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4개 대학을 선정했으며, 이번 사업선정으로 조선대학교는 국비 84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연수는 방학 기간에 아프리카 가나 등 25개국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우수 외국인 대학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역사, 경제, 문화체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될 계획이다.

교육부 〈K-MOOC 개별강좌 공모〉 최다 선정

'공동주택 분쟁 이해' 등 4개 강좌·국비 2억 확보

강혁신 교수

이영란 교수

조승주 교수

박진철 교수

조선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개별강좌 영역 공모에 4개의 강좌가 선정됐다. 대학별로는 최다 선정이다.

선정된 강좌는 이공계 기초 분야 '일반화학 개념의 핵심(의과대학 의예과 조승주 교수)', 한국어(학) 분야 '한국 근대사, 감춰진 이야기(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박진철 교수)', 자율분야에 '공동주택 분쟁 이해(법사회대학 법학과 강혁신 교수)', '차이나 허스토리(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이영란 교수)' 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K-MOOC(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는 대학·기관의 우수 온라인 강좌를 일반인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이다.

K-MOOC는 2015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745개 강좌를 개발·제공하고 있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대학과 학습자의 관심이 증가했다.

조선대학교는 이번 사업에서 학습 대상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이공계기초 분야, 한국어(학) 분야, 자율 분야의 강좌가 선정됐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조선대학교는 국비 2억원(강좌당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K-MOOC 강좌는 누리집(www.kmooc.kr)에서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 13년 연속 선정

국비 11억여 원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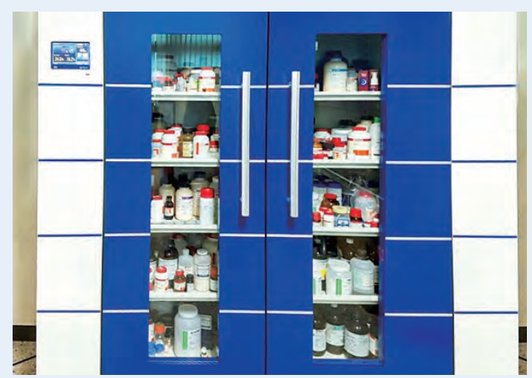
조선대학교는 지난 5월 29일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3년 연속 선정되어, 2020년에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교육부가 대입전형 과정에서 신뢰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되며, 조선대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사업의 전신인 '입학사정관제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로 '13년 연속 선정'되는 기록을 세웠다.

조선대학교는 고른기회 전형 확대, 저소득층학생 학업지속을 위한 지원 강화, 농어촌, 도서지역 등 정보 소외지역 및 소외계층 대상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사회적 책무 이행에 노력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기간은 2년(1+1)이며, 교육부로부터 11억 9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조선대학교의 국비 지원은 호남 사립대 중 최대 규모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 선정

국비 4827만 원 확보



조선대학교가 최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사업본부 주관 '2020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촉진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을 보다 안전한 환경으로 조성하는데 정부 예산을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모 결과 지난달 29일 조선대학교를 포함해 전국 15개 대학이 이번 사업의 추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조선대학교는 4827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산·염기분리형 시약장 7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조선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평가 '최우수' A등급

조선대학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을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체제를 지원하는 교육부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를 도모하는 재정지원사업이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전국 143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대학이 제출한 연차실적보고서를 토대로 1차년도 사업추진성과에 대하여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진행했다.
조선대는 평가에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의 목표와 혁신사업 목표가 잘 연계되었으며 1차년도 사업 추진실적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영역별 프로그램 수행실적이 뛰어난 점이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우수사례로 제시한 〈실용 학문 기반 학습자 주도형 전공 설계 교육과정-스마트이동체 융합시스템공학부 예시〉는 대학특성화교육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대비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국가발전 및 성장 동력이 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대학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로 2차년도(2020년)인 올해에 총 44억 3400만 원의 국비지원을 받는다.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 간호학 전공교재, 몽골 국정교과서 채택

지난해 4월 몽골민족대에서 열린 간호학전공교재 출판기념회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이 개발한 간호학 전공교재가 몽골 간호학 국정교과서로 채택됐다.
조선대학교 국제협력선도대학육성·지원사업단은 호남지역 대학 최초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4년(2017년~2021년) 동안 몽골민족대학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몽골 간호계 인사 초청 대한민국 국립암센터 연수, 국제컨퍼런스 참여, 보건소 간호사 대상 암환자 교육,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제보건의료캠프, 몽골 간호협회와의 공동 학술대회 등을 진행해 왔다.
이번 교과서는 사업단 활동을 통해 진행했던 학술교류, 국내 간호학과 교수와 몽골 현지 집필진의 원고 집필과 번역 및 감수를 통해 개발됐다. 사업단은 지난해 4월 26일 몽골민족대학교에서 간호학과 전공교재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5월 몽골보건부는 간호학 교육 개선의 일환으로,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간호학과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들에 대한 논의를 거쳐 9권의 교재를 몽골 국가 차원의 교과서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몽골 국정교과서로 채택 된 교재는 △기본간호학1 △기본간호학2 △기본간호학 실습지침서 △건강사정 실습지침서 △간호윤리 △암환자의 간호 △간호학개론 △여성건강간호학 실습지침서 △아동간호학 실습지침서 총 9권이다.
김진희 단장(간호학과 교수)은 "몽골 간호계와 함께 개발한 전공교재들이 국정교과서로 지정되어 영광스럽고, 이 영광을 이 사업에 함께하는 분들께 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학협력단,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선정

3개 연구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관 사업

김윤태 전자공학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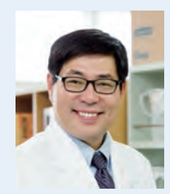
● IT융합대학 김윤태 교수팀은

이번 사업에서 'AI 기반 다중센싱을 이용한 Brain-body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을 주제로 선정되어 국비 약 58억을 지원받는다.
김윤태 교수팀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관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과 성균관대학교, (주)가온아이티, 사이버테크(주)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김윤태 교수팀은 생체신호와 뇌 기능 정보를 획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AI 알고리즘을 이용해 뇌 기능 간의 상호 연결성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우울증 및 정신 질환 조기 진단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의료진에게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제공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진단기술로 활용이 가능하며, 지역의 의료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개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재효 연구교수

● IT연구소 정재효 교수 연구팀은

이번 사업에 선정된 과제인 '의료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존을 위한 분산 환경에서의 연합 AI 컴퓨팅 모델 개발' 연구에 참여한다.
이 연구에는 주관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삼성서울병원, ㈜유티소프트가 참여한다. 정재효 교수팀은 약 5억 4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연구는 의료데이터의 노드 간 이동 없이 분석/학습 가능한 엣지 컴퓨팅 기반의 연합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분산 환경에서 Multi bio-signals 측정이 가능한 웨어러블 시스템을 활용해 실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로 대용량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 기술을 통해 여러 종류의 AI 분야 산업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호 의생명과학과 교수

●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이건호 교수 연구팀은

이번 '산업융합형 AI 연구개발 사업'에서 '노화 질환 예측 및 진단을 위한 유전체 기반 AI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선정됐다.
이 과제에는 주관기관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연구기관인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재)광주테크노파크, (주)디엔에이링크가 참여한다.
조선대학교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을 이끌고 있는 이건호 교수는 이 연구로 서울대 등과 노화질환 관련 다중 의료정보 데이터 베이스 및 노화질환 장기추적 유전체 코호트를 구축한다.

가수 인순이 설립 '해밀학교'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MOU

조선대학교는 가수 인순이로 알려진 김인순 이사장이 설립한 '해밀학교'와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3일 체결했다.

김인순 이사장은 지난 2012년 10월 사단법인 '인순이와 좋은사람들'을 설립하고, 2013년 4월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을 위한 해밀학교를 설립했다. 해밀학교는 지난 2016년 3월 무상교육으로 학교 운영형태를 전환하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인재로 성장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교육 및 기자재 지원, 인적 교류 등을 진행하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세부 내용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원활한 교육연계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기자재 지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SW사고 증진 교육 프로그램 제공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필요한 사업 진행 등이다.

'5·18민주화운동·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연대' 세미나 및 대토론회

조선대학교 민주평화연구원·법학연구원·사회과학연구원·5·18기념재단 공동 주최

202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 영남의 부마민주항쟁과 호남의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연계성을 살피고, 진상규명을 위한 연대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 및 대토론회가 지난 5월 28일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법학연구원·사회과학연구원과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이해 이곳 광주에서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록전시회'가 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5·18 40주년을 맞이해 양대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 연대방안에 대해 토론하기 위한 세미나와 대토론회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선 박정희 정권 당시인 1979년 발생한 부마항쟁의 진압 작전을 계획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1980년 5월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정권을 탈취한 만큼 '부마와 5·18은 쌍생아'라는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군사 독재 권력에 맞서 민주화를 이끈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조사 활동을 연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선대학교 '네이처 인덱스' 호남 사립대 1위

연구경쟁력 전년 대비 187% 상승

조선대학교가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서 발표한 '2020 네이처 인덱스 교육기관 순위(2020 Nature Index-Academic)'에서 호남 사립대 1위를 차지했다.

네이처 인덱스는 네이처가 발표하는 대학/연구기관의 연구경쟁력 지표다. 2019년 국제 유력 학술지 82개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기관, 공동 저자의 기여도, 학문분야별 가중치 등을 분석해 연구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제시한다.

조선대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2020년 국내 순위에서도 호남 사립대 1위를 유지했다. 특히, 네이처 인덱스에 따르면 조선대학교의 2019년 연구경쟁력은 2018년보다 18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사회융합대학, 지역 100개 기업과 선취업·후학습 진흥 협약

산·학교류회 성료

광주 유일 평생학습 거점대학인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이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해 '100인 가족기업 초청 MOU 체결 및 산·학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교류회는 지역사회 산·학간 연계를 통한 선취업 활성화로 고용 및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의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6월 9일 오후 5시 광주 라페스타웨딩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선대 민영돈 총장과 김종경 미래사회융합대학장, 광주·전남권 기업체 관계자 등 119명이 참석했다.

발전기금 기탁식에서는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체제의 발전을 위해 ㈜길갈이 1000만 원을, ㈜씨엔코가 1000만 원, 광주지구 JC특우회가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어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과 100개 기업 간 업무협약(MOU)이 이뤄졌다. 이날 협약을 맺은 기업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의 가족기업으로 등록되며, '선취업·후학습 진흥 가족기업' 현판이 각 회사에 부착된다. 협약 내용은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협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조선대학교 가족회사 선취업 연계 협력 ▲선취업자에 대한 재직자 교육 훈련 지원 협력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 협력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운영 등이다.

조선대-상지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상호 협력”

조선대학교와 상지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 등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6월 1일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을 비롯해 상지대학교 교무위원 23명이 광주를 방문했다. 상지대학교 교무위원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이날 오전 9시 30분 국립5·18 민주묘지를 방문하여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민주열사들을 추모했다.

이후 오전 10시 30분 양 대학은 조선대학교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상호교류 협정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정대화 총장을 비롯해 상지대학교 교무위원과,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을 비롯해 조선대학교의 교무위원, 정종훈 조선대학교병원장 등 총 37명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포함한 대학의 공공성 강화 ▲교수 및 학생의 학술활동 교류 ▲학술 공동연구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출판물, 도서, 교육자료 및 정보의 상호 교환 ▲시설물의 상호 이용 ▲학생 해외봉사, 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동운영 ▲기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정대화 총장은 “광주는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 특히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한 해에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정 총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는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 특별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 교육부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지대학교와 조선대학교가 공영형 사립대 추진에 대한 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영돈 총장도 환영사를 통해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상지대학교와 의미 있는 협약을 맺게 되어 기쁘고, 양 대학이 돈독한 협력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발전과 공공성 강화를 함께 견인해 나가자”고 전했다.

6월 1일 상지대학교 정대화 총장을 포함한 상지대 교무위원 23명이 광주를 방문하여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오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조선대학교와 '공영형사립대 추진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선대 미술관, 5·18 40주년 특별전
〈트라우마, 치유를 향한 모색〉 진행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 지향' 주제 미디어아트 전시

박찬경 '시민의 숲'· 송상희 '다시 살아나거라 아가야'

조선대학교 미술관은 본관 1층 김보현·실비아올드 미술관에서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특별전 '5·18 40년의 트라우마, 치유를 향한 모색'을
5월 18일부터 6월 29일까지 개최했다.
'치유를 향한 모색'이란 트라우마에 대한 진정한 치유로서 아픔을 공감하는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전에선 미디어아트 작품인 박찬경 작가의 '시민의 숲'과
송상희 작가의 '다시 살아나거라 아가야'가 전시됐다.

01

01 박찬경 시민의 숲, 2016, 3채널 비디오, 흑백_사운드(3D), 26분 6초, 뉴미디어,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02 박찬경 시민의 숲, 2016, 3채널 비디오, 흑백_사운드(3D), 26분 6초, 뉴미디어,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03 송상희 다시 살아나거라 아가야, 2017, 3채널 비디오 설치, 17분, 뉴미디어,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04 송상희 다시 살아나거라 아가야, 2017, 3채널 비디오 설치, 17분, 뉴미디어,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박찬경(朴贊景, 1965-) 작가는 1990년대 이후 분단과 냉전 등의 사회적 쟁점과 근대 사회에 대한 동아시아의 민족주의에 관련한 종교사적 재현을 소재로 사진, 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 분야를 넘나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인 '시민의 숲'은 김수영 시인의 '거대한 뿌리'(1964)와 화가 오윤의 미완성작 '원귀도'(1984)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
이 작품은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비평적인 접근이자 격변의 역사 속에서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동양적 애도를 전통적인 두루마리 산수화 형식을 빌려 3채널 비디오와 공감각적 사운드를 통해 다차원적인 시점으로 구현한 작품이다.
샤머니즘적 애도로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공동체적 추모 행위'를 보여주며, 국가 우선주의에 의한 근대적 폭력을 당한 광주의 희생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송상희 작가의 '다시 살아나거라'는 비극적 영웅 설화 '아기장수' 이야기를 바탕으로 종말과 구원, 묵시적 상황과 새로운 생성의 에너지를 다룬다. 국가나 집단의 안정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거나 자연재해, 경제 위기 등으로 절망하고 소멸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영상 드로잉 텍스트로 변이시킨 작품이다.
작품에선 5·18과 같은 근대적 폭력과 사회적 참사로 희생당한 무고한 영혼들을 위해 T.S 엘리엇의 시 '텅빈 사람들'을 통한 진혼곡을 바친다. 이로써 5·18광주민주화운동 40년을 맞이해 오늘날, '올바른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찰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02

03

04

'2019학년도 대학 교육행정서비스 CQI 우수사례' 선정

중앙도서관 학술정보지원팀과 학술정보운영팀은 조선대학교에서 주관한 '2019학년도 대학 교육행정서비스 CQI 우수사례' 친절서비스 교육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13일 열렸다. 중앙도서관은 직원 및 근로학생을 위한 '중앙도서관 전화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고 교육하였으며, 도서관 친절 서비스 확대 등 자구 노력 및 시설관리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조선대학교 교수 연구자료 상설전시

중앙도서관은 도서관 1층 로비에 본교 교수 연구자료 상설전시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전시된 자료는 2019년에 발간된 우리 대학 교수 연구논문과 단행본 도서로, 학문분야별 우수 논문 중 저자의 전시 동의를 받은 논문 8건을 선별해 전시했다. 도서는 2018년~2019년에 발간된 단행본 60여 종 중 단독 저자인 8권이 전시되고 있다.
중앙도서관은 상설전시 코너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교체해 운영할 계획이며, 이는 교수 연구력 증대와 구성원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lumn

민립대학의 가치를 공유합니다

74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대학교는
해방 직후 국민들의 희망과 염원을 담아 탄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입니다.
조선대학교를 아끼고 사랑하는 구성원과 시민들의
애정 어린 글을 실었습니다.

학생칼럼

일주일 동안 유튜브 없이 생활하기, 가능할까?

안용현
정치외교학과 2학년(조대신문 기자)

게임, 뉴스, 먹방 등 스트레스 해소, 취미와 관련한 정보를 찾기 위해 남녀노소가 유튜브를 찾는다. 특히 대학생이 자주 접하는 제1매체가 단연 유튜브이다. 2018년 전국 400개 대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및 시간표 서비스 앱인 '에브리타임'이 전국 대학생 2,5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학생의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2시간 15분이다. 대학생이 유튜브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평범한 대학생인 내가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보지 않기'에 도전해봤다.

스마트폰 대신 책을 꺼내들다

하루 평균 2시간 33분을 유튜브 시청으로 보냈다. 아무 생각 없이 보는 유튜브가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었다. 그러나 유튜브에 중독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전이 시작된 지난 5월 26일, 이날의 풍경은 사뭇 달라 보였다. 학교 가는 지하철에서 나는 스마트폰 대신 〈삼국지〉를 꺼내 들었다. 〈삼국지〉는 내가 예전에 반만 읽고 포기했던 책이다. 그러나 15분이 지나니 집중이 안 됐다. 결국 책을 덮고 넋을 놓은 상태로 학교로 향했다. 이상하게도 유튜브를 보지 않으니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느낌이 들었다.

습관의 무서움

집에 도착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아무생각 없이 노트북을 켰다. 목적이 없어도 인터넷을 켜는 것은 습관이다. 난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인터넷을 켜고 유튜브에 접속해 버렸다. 몇 분 뒤에는 죄를 지은 것처럼 곧바로 인터넷 창을 껐다. 식은땀이 흘렀다. 도전이 하루 만에 실패로 끝나다니……. 유튜브를 바로 즐겨찾기에서 삭제했고 도전은 다시 시작됐다.

유튜브의 빈자리

체험 시작 이틀 후, 따분해진 상태를 벗어나려고 친구에게 연락해 만나자고 했다. '유튜브 일주일 안 보기' 도전을 친구에게 말했다. 친구는 '인생 재밌게 산다'며 날 비웃었다. 친구와 만나는 동안에는 괜찮았지만, 헤어진 후에는 유튜브가 또 그리워졌다. 다른 친구에게도 연락해보고 다른 재미를 찾기 위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만족스럽지 않았다.

도전 실패… 내가 느낀 것

두 번째 도전도 실패로 끝나게 된 이유는 대학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는 강의를 들을 때 유튜브를 접속했다. 결국 유튜브와 멀어질 수 없는 것이 내 일상, 우리의 일상이다. 하지만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유튜브는 기존에 어렵거나 돈이 들던 지식이나 기술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 유익한 존재다. 유튜브가 유익한 존재로만 남기 위해서는 사용 원칙을 정하고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듯 하다. 유튜브가 물러간 자리를 독서, 공부, 운동 등 의미 있는 일로 차곡차곡 채우다보면, 어느새 유튜브를 보지 않았을 때 느꼈던 공허함과 초조함도 사라져 있겠지.

교수칼럼

공인인증서여, 수고 많았다!

김영식
정보통신공학부 교수

지난 5월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인인증서는 도입 21년 만에 사라질 운명이다. 단순히 은행 웹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기만 해도 이것저것 뭔가 설치되고, 다른 은행에 들어가면 비슷한 게 또 설치된다. 악성코드를 탐색한다고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악성코드처럼 컴퓨터를 느리게 만들고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모든 일의 원흉으로 공인인증서가 지목돼 왔다. 이른바 '공공의 적'으로 불리는 공인인증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작은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상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자서명법'이 만들어진다. 전자서명이란 실생활에서 중요한 거래 시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 상에서도 거래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디지털 인감에 해당하는 암호학적 기술이다. 이 전자서명에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고유의 열쇠를 갖도록 하는 공개키 암호라는 기술이 사용되는데, 자신의 열쇠가 '진짜'임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공인인증서'이다. 마치 인감 도장에 인감증명서가 따라가듯, 공개키 암호에 공인인증서가 함께 해 온 것이다. 이는 국제 표준화된 교과서적인 방식이고, 당시 보안 기술 관점에서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선진적으로 앞서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당시 미국 법에 따르면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은 높은 보안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보안 규제를 적용했고, 소프트웨어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로 인해 당시 대부분 사용하던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의 브라우저는 40비트 암호화만 가능했다. 40비트라는 것은 암호화를 하더라도 당시 보통 컴퓨터로도 하루면 답을 찾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니 이를 믿고 은행 거래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만든 128비트 Seed 암호가 있었고, 이는 당시에 국제표준이 됐다. Seed를 사용해 공인인증 시스템을 만들었으나, 문제는 브라우저 자체에서 Seed의 암호화/복호화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했다. 그리고 설치한 김에 로그도 만들고, 사용자 정보를 빼가는 스파이웨어도 탐색하는 등 이것저것 보안을 위한다고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덤이었다. 브라우저에서 각종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수단이 액티브엑스였으니, 모든 악의 뿌리인 액티브엑스는 이렇게 등장했다.

당시 선택은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의 보안 규제는 사라졌고, 브라우저만으로 각종 암호화 기술이 잘만 작동하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공인인증 시스템은 사람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해외 직구 등으로 외국의 거래 방식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우리의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기술 관점에서 공인인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렇다고 외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또한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되는 법을 통해 공인인증서는 사라지게 되었으나, '인증서' 자체가 당장 사라지거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공인'은 사라졌으나 '인증서'는 당분간 우리와 함께 남아 있을 것이고, 이를 다른 '사설' 인증서들이 대체하거나 새로운 인증 수단이 대체해 나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개인 통신 장비의 확산으로 사용자 인증을 대체할 수단의 보급이 완벽한 수준이며, 이미 보안 기술적으로 쌓아놓은 신뢰 시스템도 많이 있다. 또,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 기술들이 대거 등장할 것이므로 걱정할 것도 없다. 공인인증서여, 수고 많았다!

언론인 칼럼

국내 유일한 민립대학의 **가치와 책임, 잊지 말자!**

김인수
광남일보 부국장

조선대학교가 확 달라졌다. 구성원 간 불협화음이 줄어들고 흔들리던 리더십은 안정을 되찾았다. 만개한 장미정원의 꽃송이들만큼이나 평온하고 화사한 모습이다. 끝이 없을 것만 같던 깜깜한 터널을 지나서인지 변화된 교정의 모습은 더욱 선명하다.

조선대는 지난해 극심한 부침에 시달리면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최고 인기종목인 '하이다이빙' 경기장을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조선대의 존재를 지구촌 방방곡곡에 알렸고, 제100회 전국체전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로 역대 최고의 성적을 달성했다. 지난 2017년 호남권 대학 최초로 인공위성을 개발해 발사했고, 이후 대학 내 연구팀 2곳이 또다른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등 우주·항공 분야 중심 대학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국책·외부 연구비 유치에서 호남 사립대학 중 1위를 차지했고,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한국인 표준 뇌 지도를 활용한 치매예측기술 의료기기의 허가를 획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또 e스포츠 상설경기장을 유치하고, 조선대 민주평화연구원이 5월 항쟁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기본계획수립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학부 출신으로 서삼석(행정학과, 영암·무안·신안), 이형석(법학과, 광주 북구을), 윤영덕(정치외교학과, 광주 동남갑) 의원과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 이병훈(광주 동남을), 정책대학원 초빙객원교수였던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국회에 진출했다.

이번 주 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13년 연속 선정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초유의 온라인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시행 초기 약간의 차질이 있었지만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조선대는 이제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민영돈 총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이 그간 겪은 어려움과 갈등을 깨끗이 털어내고 '조선대의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 △자율에 기반을 둔 특성화와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산학혁신 △학생 중심의 행정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혁신을 약속했다.

필자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고 싶다. 74년 전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에 호남인 7만 2000여 명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건립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립대학으로서 그 책임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25만여 명의 동문을 배출한 조선대는 빛고을 광주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민립대학의 가치는 대학 입구에 세워진 조형물에서 드러난다. 이 조형물 사방의 기둥은 호남인들이 뜻을 모아 학교를 세웠던 숭고한 설립 정신의 역동적 표현이며, 서로 이어지는 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통합적으로 발전해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이 기둥 윗면 높은 곳에서 합쳐지는 것은 조선대 구성원들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고, 나아가 세계로 웅비하여 인류 번영의 기상을 함축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대가 단순한 배움터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세계 발전에 기여하는 '더 큰 대학' 조선대를 기대해본다.

언론인 칼럼

조선대학교, '호남의 자존심' 되찾자!

강현석
경향신문 차장

나는 조선대학교가 광주를 넘어 호남을 대표하는 대학이라고 생각한다. "호남 지방의 완전한 종합대학을 세워 호남의 수재와 조선 각지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자는 생각(조선대학 설립동지회 입회 권유문)"으로 무등산 자락에 터를 잡은 게 1946년 9월이다.

무등산과 어우러진 조선대 본관 '백악'은 광주 사람이라면 모르는 이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당시 하이다이빙 경기장이 조선대에 들어선 것도 전 세계로 중계될 TV화면을 고려해 결정됐다.

조선대에는 다른 대학에는 없는 특별한 '설립정신'이 있다. 1946년 조선대 설립동지회는 입회 권유문에서 "어느 대학보다 탁월한 교육기관이 되어 우리들을 이 곤궁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민족 지도자를 수천, 수 만 명 양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지식인과 관리, 지주, 촌부에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각계각층 7만 2375명이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 이렇게 탄생한 전국 첫 '민립대학' 조선대의 벽돌 한 장, 나무 한 그루에는 이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

올해로 개교 74주년을 맞는 조선대는 외형적으로도 호남을 대표한다. 조선대 동문은 20만 명이 넘는다. 18만여 명이 학사 학위를 받았고 석사 학위 2만 2000여 명, 4000여 명에게 박사 학위가 수여됐다. 조선대가 배출한 의사가 9000명에 이르고 약사도 5300여 명이나 된다. 교단에 선 사람도 5500여 명이다. 현재 재학생은 2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굳건할 것 같았던 조선대의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조선대는 2000년대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어도' 광주·전남은 물론 호남에서 독보적인 사립대학으로서의 지위를 누렸다. 학생 충원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1988년부터 임시이사가 파견된 비정상적 체재였지만, 경영 공백이 커 보이지 않았다.

조선대는 2010년, 22년간 이어진 임시이사 체제를 끝냈다. 많은 사람들이 경영 정상화로 조선대가 미래를 준비하며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대학 경영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지만 이사들은 사사건건 반목했다. 결국 2017년 또다시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학교 구성원들 간 내홍도 이어졌다. 2018년에는 교육부의 자율개선대학 선정에서 탈락하는 수모도 겪었다.

학령인구 감소와 빨라진 사회 변화 속에서 조선대는 10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잃었다. 조선대에 앞서 위기를 체감한 다른 사립대학들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유학생을 유치했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고 유사학과를 통폐합 하는 등의 구조조정에도 나섰다.

조선대는 올해 다시 정이사 체제가 됐다. 지난해 12월 민영돈 총장이 취임한 이후 내부 갈등도 빠르게 봉합됐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을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다. 구성원 모두가 조선대 설립에 나섰던 설립동지회의 입회 권유문의 한 구절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들은 황토로라도 담을 쌓고, 창호지로라도 문을 발라, 헛간으로 된 집에서라도 가르쳐서 우리 민족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조선대는 앞으로도 '호남의 자존심' 으로 남아야 한다.

민족조선 의지 모아 **학생 맞춤형 대학 거듭나자**

정훈탁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는 내 질풍노도의 시기를 함께한 곳이고, 조선대학교에선 국어국문학도가 되어 문학적 열정을 피웠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교사로 진로를 선택한 후 어학을 전공하고, 국어교육과 조교 3년을 거쳐, 교원자격증을 받았다. 나에게 조선대학교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삶의 터전이고 울타리이다.

서른 살에 고등학교 국어교사가 된 이래 줄곧 고3 담임을 맡았다. 고3 담임을 하다 보니 조선대학교는 또 내 가까이에 있었다. 수험생들이 진학해야 할 주요 대학 중 하나가 조선대학교였기 때문이다. 조선대학교에서의 나름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나를 기억해주는 조선대학교 입학처 직원 선생님들과 친밀하게 소통했고, 진학지도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았다. 학교에서는 '조선대는 정훈탁을 통하라'는 말도 잠깐 있었을 정도다.

15년 가까이 고3 진학을 담당하면서 조선대학교의 부침(浮沈)도 목격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학교는 언제나 당당했고, 동문들에게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큰 대학이다. 그런데 조선대학교는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들지 못해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되어 정원 감축 권고를 받았다. 충격적이었고, 동문으로서, 진학 담당자로서 혼돈스러웠다. 고3 학생들에게 조선대학교는 어느 순간부터 인지도가 내려가고, 먼저 선택하는 대학이 아니라 차선의 대학이 되었다. 조선대학교 동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진학팀에서 지금까지 진학업무를 맡고 있으며, 조선대학교는 또다시 업무와 밀접한 대학이 됐다.

최근 학교 현장은 크게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학력관과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고 있다. 학생 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통한 학생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가 이루어지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이 과정이 기록되고 있다. 대학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선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한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 중심 수요자 맞춤형 대학으로 고강도의 변화와 혁신을 준비할 때, 조선대학교는 전면적인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조선대학교에서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최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대학혁신 지원사업 1차년 평가에서 조선대는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

특히, 조선대학교 입학처는 학생 중심 수요자 맞춤형 입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청 및 현장 교사들과 연계하여 미래전공을 설계하고, 전문입학사정관을 통한 학생부종합전형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홈페이지를 보면 대학소개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대학, 비전과 희망을 선도하는 조선대학교'라고 되어 있다. 조선대학교의 역사와 전통, 현재 지향해야 할 미래가 오롯이 담겨 있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모두가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 '끓는 땀 부어서 일일이 다진 터' 민족조선대학교의 발걸음에 동행할 것을 약속하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2021학년도 수시모집 안내

입학상담 수시/정시 Tel: 062-230-6666, 학생부종합전형 Tel 062-230-6669

2021학년도

우리 대학 입학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한 회피·배제 제도 안내

'회피·배제 제도'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대학입학전형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사전에 수험생과 친인척 또는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조사하여 입학전형 업무에서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대학은 회피·배제 제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모든 구성원에게 알려 공정성 강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학 입학전형 평가 및 면접, 실기 등 입학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친인척 또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입학관련 업무에참여할 수 없음

자료 제출 방법

회피 친인척 또는 수험생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우리 대학에 지원할 의사가 있거나 지원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성원 스스로 입학 전형업무(관리, 진행, 평가 등 일체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신고서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출

배제 원서접수 후 우리 대학 자체 시스템과 지원자 파일을 연동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이 검색되는 경우 입학전형업무(관리, 진행, 평가 등 일체 업무)에서 배제

*자료문의: 입학관리팀 230-6682

조선대학교 입학처장

신입생 대상 입학성적 우수장학금

구분	혜택	자격기준
입학우수장학금1 (의 · 치의예과 제외)	4년간 등록금 전액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수시모집: 단과대학별 수능 국어, 수학, 영어 3개영역(미술체육대학은 국어, 영어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가장 낮은 자(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적용) 중 학생부 반영 총점 최우수자 1명 – 정시모집: 수능 영어영역 등급이 2등급 이내인자 중 단과대학별 수능 국어, 수학 2개영역 (미술체육대학은 국어) 백분위점수 최우수자 1명 – 유지조건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입학우수장학금2 (의 · 치의예과 제외)	4년간 등록금 1/2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수시모집: 모집단위별 수능 국어, 수학, 영어 3개영역(미술체육대학은 국어, 영어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가장 낮은 자(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적용) 중 학생부 반영 총점 최우수자 1명(입학우수장학생1 제외) –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단과대학별 수석합격자(입학우수장학생1 제외, 자유전공학부 제외) – 정시모집: 수능 영어영역 등급이 2등급 이내인자 중 모집단위별 수능 국어, 수학 2개영역(미술체육대학은 국어) 백분위점수 최우수자 1명(입학우수장학생1 제외) – 유지조건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입학우수장학금3 (첫단추 우수 장학금)	입학 첫 학기 2,000,000원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수시모집: 모집단위별 수능 국어, 수학, 영어 3개 영역(미술체육대학은 국어, 영어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가장 낮은 자(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적용) 중 학생부 반영 총점 상위 10% 인 자(입학우수장학생 1,2 제외) – 정시모집: 수능 영어영역 등급이 2등급 이내인 자 중 모집단위별 수능 국어, 수학 2개 영역 (미술체육대학은 국어) 백분위점수 상위 10% 인 자(입학우수장학생 1, 2 제외) – 첫단추 장학금 지급 제외 대상: 의예과, 치의예과, 군사학과
입학우수장학금4 (입학 장학금)	입학금 지원	– 신입학(수시/정시/추가)입학생 전체
의 · 치의예과 입학우수장학금1	4년간 등록금 전액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수시모집: 모집단위별 수능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4개영역 등급의 합이 가장 낮은 자 중 학생부 반영총점 최우수자 1명 – 정시모집: 수능 영어영역 등급이 1등급인자 중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총점 최우수자 1명 – 유지조건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의 · 치의예과 입학우수장학금2	4년간 등록금 1/2	– 최초합격자에 한함 – 수시모집: 모집단위별 수능 국어, 수학, 영어, 과학탐구 4개영역 등급의 합이 가장 낮은 자 중 학생부 반영총점 최우수자 1명(입학우수장학생1 제외) – 정시모집: 수능 영어영역 등급이 1등급인자 중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총점 최우수자 1명 (입학우수장학생1 제외) – 유지조건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동원글로벌 드리머장학금	학기당 생활비 350만원	– 수능 영어영역 1등급이며, 국어, 수학 등급의 합이 4 이내(수학 '가'형 응시자 1등급 상향 적용)인 자 중 면접심사 합격자 – 의 · 치 · 약대 제외 – 유지조건 있음 – 학적변동(제적 · 휴학 등)시 반환 기준 있음
지역인재장학금	등록금 전액	지역대학 입학생 중 입학성적 우수자와 특성화영역 우수자를 선발

2021학년도 신설 및 변경학과 안내

01 아시아 언어문화학부

학과소개
- 중국어문화학전공, 아랍어전공, 철학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음
- 중국어문화학전공은 중국어 및 중국문화에 대한 이해와 학습, 아랍어전공은 아랍어 및 이슬람에 대한 이해와 학습, 철학전공은 동서양 및 한국철학에 대한 이해와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학년은 각 전공분야의 기초적인 분야를 학습하고, 전공에 진입한 후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전문 인재를 양성

취업 및 진로
- 민간 관련: 무역업체, 관공서, 항공사, 교육기관 및 학원, 호텔, 관광업체, 문화콘텐츠 분야, 통역 및 번역회사, 언론방송사
- 정부 관련: 외교통상부, 국정원, 고급장교, 국제방송국, 아리랑 TV, KOTRA,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02 유럽 언어문화학부

학과소개
-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지구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1학년도 1학기부터 기존의 독일어문화학과, 러시아어과, 스페인어과를 통합하여 《유럽언어문화학부》로 새롭게 출발
- 《유럽언어문화학부》는 유럽의 문학,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유럽지역 전문가로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함. 동시에 인간과 사물에 대한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줌으로써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은 물론, 보편적 가치에 입각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세계관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함

취업 및 진로
- 기업체의 해외담당분야, 관공서, 항공사, 무역회사, 해운/선박회사, 항만공사, 호텔, 면세점 등
- 철도공사, KOTRA, 토지주택공사, 관광공사, 수자원공사, 해양경찰청, 경찰청 외사계
- 대사관, 영사관, 유학원, 동시통역 및 번역, 언론기관, 출판분야, 교사, 교수

03 신소재공학과

학과소개
- 신소재공학은 국내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학문으로써 갈수록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반도체, 전자, 자동차 및 철강 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 제조업 기반의 국제적 산업 경쟁력은 소재산업의 경쟁력에서 나옴
-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회의 기대 및 수요가 변화함에 따라 재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지식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실제적으로 첨단지식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하고 창의적 소양을 갖춘 신소재공학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음

취업 및 진로
- 종합제철소, 반도체제조업, 반도체장비 및 소재 관련기업, 석유화학회사, 철강, 자동차 및 부품관련업, 기계, 조선, 정보통신, 광산업, 의료기기, 에너지, 우주항공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소재 관련 기업체, 연구소, 공무원
- 근무여건이나 보상, 발전 가능성, 고용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직업전망지표가 높은 직업군과의 연관성이 높음

04 첨단에너지 공학과

학과소개
- 신재생에너지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산업 원료소재의 기초 및 응용 특성에 대하여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공학적 적용성 및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
- 태양광, 수소, 바이오, 지열, 풍력, 폐기물 등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이르는 미래 에너지 전략에 대처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실무 역량을 겸비한 인재 및 ICT 융합형 교과목 구축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융합한 첨단에너지공학 혁신인력 양성 주력

취업 및 진로
- 관련분야 산업체: 원료소재 개발, 제조 및 가공 중소/중견/대기업, 신재생에너지 부품 제조, 발전시스템 구축 및 시공, 시스템 운영 기업, 국외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등
- 정부 및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주식회사,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원자력발전연구원, 한국석유개발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의 정부 출연 연구소
- 국내외 대학원 진학

05 인공지능 공학과

학과소개
-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산업 전 분야를 포함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응용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 패러다임을 대비하기 위해 신설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공지능 핵심기술인 시각지능, 청각지능, 텍스트지능, 학습 및 추론지능에 대한 4개 인공지능 영역으로 핵심전공 교과과정 구성
- 심화전공 교과과정으로 지역특화산업인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에 대한 인공지능 응용 특화분야를 다루어 융합형 인재 및 산업체와의 협동 프로젝트와 인턴쉽 교과목을 통해 취업연계 및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취업 및 진로
- 인공지능 SW개발 및 응용관련 전 분야: 에너지, 헬스케어, 자동차, 문화콘텐츠, 지능로봇, 데이터분석, 금융분석, 국방, 지능형에이전트 등
- 연구소: 정부 출연 연구소(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과학연구원, 지능정보기술연구원 등), 기업 부설 연구소(삼성전자, LG, 네이버랩스, 카카오AI, 솔트룩스, 뷰노, 루닛, 유비파이, 뤼이드 등)
- 국내외 대학원 진학: 석사, 박사, 학석사 통합, 석박사 통합 과정

전형별 모집인원

대학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입학정원	2019 이월인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수시합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일반	군사학과	국가보훈	만학도	특성화고	특성화고 등 재직자	소계	실기	특기자	소계	일반	지역인재	소프트웨어	농어촌	장애인등	기초생활	소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글로벌 인문 대학	인문	국어국문학과		65	1	34		3				37				10	10				3	23	57	3	60
		영어영문학과*		86		50			2			52				10	10					20	72	-	72
		역사문화학과		48	1	18						18				10	10					20	38	-	38
	예능	문예창작학과		30					1			1	15		15	10				2	2	14	26	4	30
	인문	일본어과		38		30						30				5						5	35	-	35
		아시아언어문화학부	아랍어전공(31) 중국어문화학전공(46)* 철학전공(20)	97	1	58			2			60				15	10					25	85	-	85
		유럽언어문화학부	독일어문화학전공(23) 러시아어전공(20) 스페인어전공(31)	74		45						45				15	5					20	65	-	65
		글로벌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학과		33		21						21				5						5	26	-	26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 대학	자연	수학과		36		11						11				5	10					15	26	-	26
		컴퓨터통계학과		39		21						21				10						10	31	-	31
		화학과		50		21						21				10	10					20	41	-	41
		생명과학과		50		20						20				10	10					20	40	-	40
		의생명과학과		45		21						21				15						15	36	-	36
		식품영양학과		42		15		3				18				10	5		3		3	21	33	6	39
	인문	경찰행정학과		37		12		3				15				5	10		4		4	23	30	8	38
		상담심리학과		29		12						12				5			4		3	12	17	7	24
	자연	언어치료학과		27		10						10				5			4			9	15	4	19
		작업치료학과		40		18						18				10					2	12	28	2	30
		소방재난관리학과		30		15						15				5	5					10	25	-	25
법사회 대학	인문	법학과*		99	1	48		3	3			54				15	15		4		5	39	84	9	93
		공공인재법무학과		40		20		3				23				5						5	28	-	28
		행정복지학부*	행정학전공(40) 사회복지학전공(40)	80		34		3	2			39				15	10		4	4	4	37	64	12	76
		정치외교학과		54	1	39						39				5				1		6	44	1	45
		신문방송학과		45		25						25				10			4	1		15	35	5	40
		군사학과		40			30					30											30	-	30
경상 대학	인문	경영학부*		252	4	144		3	8	10		165				15	35		5		5	60	205	20	225
		경제학과*		133		66			2	4		72				15	25					40	108	4	112
		무역학과*		90	1	45			2	4		51				15	10					25	72	4	76
공과 대학	자연	토목공학과*		62	1	37			2	3		42				10			5		3	18	49	11	60
		건축공학과★		45		24				3		27				10			5		3	18	34	11	45
		건축학과(5년제)		36		22						22				5			5			10	27	5	32
		기계공학과*		220		154		3	4	6		167				10	25		5		5	45	196	16	212
		스마트이동체융합 시스템공학부		120	3	73		2		3		78				10	20		4		1	35	105	8	113
		생명화학고분자공학과★		121		85		3		3		91				10						10	98	3	101
		신소재공학과		90		38		3		3		44				15	15				2	32	71	5	76
		산업공학과★		40		26						26				5						5	31	-	31
		전기공학과		80		42		3		4		49				10	10		5			25	65	9	74
		광기술공학과★		50	1	36						36				5						5	41	-	41
		환경공학과		60		30		3				33				5	10					15	48	-	48
		원자력공학과		41		19						19				5	10					15	34	-	34
		융접·접합과학공학과		30		17		3		3		23				5						5	25	3	28
		첨단에너지공학과		50		40						40											40	-	40

대학	계열	모집단위	개설전공	입학정원	2019 이월인원	수시모집																			
						학생부교과							실기/실적			학생부종합							수시합계		
						정원내				정원외			정원내			정원내			정원외						
						일반	군사학과	국가보훈	만학도	특성화고	특성화고 등 재직자	소계	실기	특기자	소계	일반	지역인재	소프트웨어	농어촌	장애인등	기초생활	소계	정원내	정원외	합계
IT 융합대학	자연	전자공학부	전자공학전공	100	2	38				4		42				15	15		5		5	40	68	14	82
			지능IoT전공	60		24						24				10	10					20	44	-	44
		컴퓨터공학과		120	1	50		3				53				10	10	12	5	4	5	46	85	14	99
		정보통신공학부	정보통신공학전공★	76		40				3		43				5	5		5		5	20	50	13	63
			임베디드보안전공	30	1	17						17				5						5	22	-	22
		인공지능공학과		50		40						40											40	-	40
사범대학	인문	국어교육과		35		15						15				5	4		3			12	24	3	27
		영어교육과		35		15						15				5	4		3			12	24	3	27
		특수교육과		30		14						14				5				3		8	19	3	22
	자연	수학교육과		27		12						12				5			3			8	17	3	20
		물리교육과		20		10						10				5						5	15	-	15
		화학교육과		20		10						10				5						5	15	-	15
		생물교육과		20		10						10				5						5	15	-	15
		지구과학교육과		20		10						10				5						5	15	-	15
	예능	음악교육과		30									24		24								24	-	24
	인문	교육학과		20		8						8				5						5	13	-	13
의과대학	자연	의예과		125	1	43						43					27		2		1	30	70	3	73
		간호학과		80		11						11				10	4		3		3	20	25	6	31
치과대학	자연	치의예과		80	-2	26						26					20		2		1	23	46	3	49
미술체육 대학	예능	회화학부	서양화전공 한국화전공	37									21	4	25								25	-	25
		문화콘텐츠학부	현대조형미디어전공 시각문화큐레이터전공 가구·도자디자인전공	64	2	10				3		13	40	3	43								53	3	56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섬유·패션디자인전공	46									36		36								36	-	36
		시각디자인학과		32						3		3	26		26								26	3	29
		디자인공학과		35									28		28				3			3	28	3	31
		만화·애니메이션학과		33									21		21								21	-	21
	체능	체육학과*		100					2			2		50	50	5	15		5		3	28	72	8	80
		스포츠산업학과		30													24					24	24	-	24
		태권도학과		40									12	12	24					4		4	24	4	28
		공연예술무용과		30									25		25								25	-	25
	예능	K-컬처엔터테인먼트학과		30		10						10				10	5					15	25	-	25
기초교육 대학	-	자유전공학부		81		40						40				5	10					15	55	-	55
미래 사회 융합 대학	인문	휴먼융합서비스학부*	지식자산컨설팅전공 스마트비즈니스전공 문화산업전공	13					11		62	73											11	62	73
	자연	신산업융합학부*	ICT응용전공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뷰티화장품산업전공	7					5		58	63											5	58	63
총계				4,330	20	1,949	30	44	46	59	120	2,248	248	69	317	490	433	12	100	19	68	1,122	3,321	366	3,687

※ '*'표시 모집단위는 전일제수업 실시학과(부)이며, 주간 또는 야간에 수강할 수 있음

※ ★ 표시 모집단위는 공학교육인증 참여학과임

※ 의료과정 평가·인증 학과

- 의과대학(의예과, 의학과) 인증: 2020. 3. 1. ~ 2024. 2. 29.
- 치과대학(치의예과, 치의학과) 인증: 2020. 3. 1. ~ 2024. 2. 29.
- 의과대학(간호학과) 인증: 2017. 12. 17. ~ 2022. 12. 16.

수시모집 (학생부교과전형)

1. 지원자격

전형유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국가보훈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전형 세부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만학도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2020. 9. 28.) 기준 만 30세(1990. 9. 28. 이전 출생) 이상의 평생학습자	
특성화고교전형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준학과	특성화고교[국내 특성화고 및 특성화고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 지원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를 졸업한 자 (단, 전입학 학생은 '기준학과'의 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해야하므로 '출신학과'항에 해당)
	출신학과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 지원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기준학과'와 다르더라도 해당 모집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세부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원서접수 마감일 2020. 9. 28. 기준)	

※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및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2. 수능최저학력기준(일반전형)

단과대학	수능최저학력기준
글로벌인문대학,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법사회대학, 경상대학, 공과대학, IT융합대학, 기초교육대학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5이내 * 군사학과는 제외
사범대학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8이내 * 음악교육과: 1개 영역 등급이 5이내
의과대학 의예과, 치과대학 치의예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의과대학 간호학과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5이내
미술체육대학, 미래사회융합대학	없음

※ 탐구과목은 우수한 1과목 반영(직업탐구는 반영하지 않음)
※ 자연계열 및 자유전공학부 모집단위는 수능 수학(가)형 응시자에게 해당영역 1등급 상향 적용(의·치의예과 제외)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선발 단계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 및 점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합계 (전형총점)
			학생부		면접		
전형	모집단위		교과	출석			
일반전형	공통	일괄 합산	90% (450~405)	10% (50~45)	-	적용	100% (500~450)
	미술체육대학				-	-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제외)		68.2% (450~405)	7.6% (50~45)	24.2% (100~84)	적용	100% (600~534)
	의과대학 의예과	1단계 (5배수)	90% (450~405)	10% (50~45)	-	적용	100% (500~450)
		2단계	95% (950~855)		5% (50~45)		100% (1,000~900)
국가보훈대상자전형/만학도전형 / 특성화고교전형 /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해당계열	일괄 합산	90% (450~405)	10% (50~45)	-	-	100% (500~450)

※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모집요강의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참조
※ %는 기본점수를 제외한 최고점과 최저점간 실질 반영비율임
※ ( )는 기본점수를 포함한 최고점과 최저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전형	선발단계	선발배수	선발 단계 별 반영 비율	
			서류평가	면접평가
일반전형 / 소프트웨어전형	1단계	4배수	100% (교과활동 60% + 비교과활동 40%)	-
	2단계	1배수	70% (1단계 성적)	30% (인적성면접)
지역인재전형 / 농어촌학생전형 /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	일괄합산	1배수	100% (교과활동 50% + 비교과활동 40% + 전형적합성 10%)	-

2. 지원자격

전형	지원자격	
일반전형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소프트웨어전형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에 재능이 있는 자	
지역인재전형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농어촌학생전형	아래의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1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②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본인과 부모 모두가 우리 대학에서 지정한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유형2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졸업(예정)자
장애인 등 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1개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 본인(국가보훈처 등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일반전형·소프트웨어전형: 학교생활기록부에 의하여 국내 고등학교 석차등급, 출결성적(출결상황) 등의 산출이 불가능한 자 (검정고시 출신자 또는 외국의 고등학교 전 과정 이수자 등)는 지원할 수 없음
※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및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3. 평가방법

전형	선발단계	구분	평가방법
일반전형/ 소프트웨어전형	1단계	서류평가	(4배수 선발) 학생부를 바탕으로 교과활동, 비교과활동을 포괄적으로 종합평가
	2단계	면접평가	- 평가요소: 인성 및 가치관, 전공 및 적성영역에 대한 학업열의 등을 포괄적으로 종합평가 - 전형자료: 학교생활기록부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장애인등대상자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	일괄합산	서류평가	학생부를 바탕으로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전형적합성을 포괄적으로 종합평가

4.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수능 응시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단 지역인재전형 의·치의예과 제외)

지역인재전형(의·치의예과)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수시모집 (실기/실적전형)

1. 지원자격

전형	지원자격
실기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기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모집단위별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

※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및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2.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선발단계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 및 점수					수능최저 학력기준	합계 (전형총점)
			학생부		면접	입상실적	실기		
			교과	출석					
실기 전형	글로벌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일괄합산	30% (450~405)	3.4% (50~45)	-	-	66.6% (500~400)	적용	100% (1,000~850)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27.1% (450~405)	3% (50~45)	9.6% (100~84)	-	60.3% (500~400)	적용	100% (1,100~934)
	미술체육대학		30% (450~405)	3.4% (50~45)	-	-	66.6% (500~400)	-	100% (1,000~850)
특기자 전형	회화학부, 문화콘텐츠학부	일괄합산	40.9% (450~405)	4.6% (50~45)	-	54.5% (500~440)	-	-	100% (1,000~890)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28.1% (450~405)	3.2% (50~45)	-	37.5% (500~440)	31.2% (100~50)	-	100% (1,100~940)

※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모집요강의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참조
※ %는 기본점수를 제외한 최고점과 최저점간 실질 반영비율임
※ ( )는 기본점수를 포함한 최고점과 최저점

3.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단 문예창작학과, 음악교육과 제외)

글로벌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사범대학 음악교육과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1과목) 중 1개 영역 등급이 5이내

군사학과전형

1. 지원자격

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나.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생 및 고교졸업과 동등한 자격소지자

※ 단, 군 복무를 필한 자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27751호) 제19조에 의거하여 응시연령은 군 복무기간에 나이를 합산하여 적용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복무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2세, 복무기간 2년 이상: 3세

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라. 친권자 동의 및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시 지원불가

※ 임관 결격사유 및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및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2. 모집인원

모집시기	계열	입학정원	모집인원		
수시모집	인문	40명	30명	남	25명
				여	5명
정시모집(가군)			10명	남	10명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구분	선발 단계	선발 배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수능최저 학력기준	합계 (전형총점)
			학생부(수시) 수능(정시)	체력검정	면접평가	인성검사 신체검사	신원조사		
수시 모집	1단계	4배수	교과 90% + 출석 10% (500~450)	-	-	-	-	적용	100% (500~450)
	2단계	1배수	18.9% (700~630)	27% (100~0)	54.1% (200~0)	합격/불합격만 판정	최종선발 심의 시 반영		100% (1,000~630)
정시 모집	1단계	4배수	100% (700~0)	-	-	-	-	적용	100% (700~0)
	2단계	1배수	70% (700~0)	10% (100~0)	20% (200~0)	합격/불합격만 판정	최종선발 심의 시 반영		100% (1,000~0)

※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모집요강의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참조

※ %는 기본점수를 제외한 최고점과 최저점간 실질 반영비율임

※ ( )는 기본점수를 포함한 최고점과 최저점

4.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가/나), 영어 3개 영역 등급의 합이 15 이내 (수학(가)형 응시자는 수학 1등급 상향 조정)

의예과 / 치의예과

1. 지원자격

구분	전형		지원자격
수시	학생부교과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	지역인재전형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
		농어촌학생전형	아래의 [유형 1]과 [유형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1: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②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동안 지원자 본인과 부모 모두가 우리 대학에서 지정한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자 유형2: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소재 초·중·고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에 거주한 졸업(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정시	수능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한국사에 모두 응시한 자
		지역인재전형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소재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입학부터 졸업까지)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로서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한국사에 모두 응시한 자

※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 및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2. 모집인원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모집인원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수능		
	일반	지역인재	농어촌	기초생활	일반	지역인재	
의예과	43명	27명	2명	1명	34명	22명	129명
치의예과	26명	20명	2명	1명	24명	8명	81명

3.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시모집〉

전형 / 학생부교과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비율 및 점수			수능최저 학력기준	합계 (전형총점)
			학생부		면접		
			교과	출석			
일반전형	의예과	1단계(5배수)	90% (450~405)	10% (50~45)	–	적용	100% (500~450)
		2단계	95% (950~855)		5% (50~45)		100% (1,000~900)
	치의예과	일괄합산	90% (450~405)	10% (50~45)	–	적용	100% (500~450)

※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모집요강의 학생부성적 산출방법 참조
※ %는 기본점수를 제외한 최고점과 최저점간 실질 반영비율임
※ ( )는 기본점수를 포함한 최고점과 최저점

전형	모집단위	선발단계	전형요소별 반영 비율	
학생부종합			서류평가	면접평가
지역인재전형/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전형	의예과 치의예과	일괄합산	100% (교과활동 50% + 비교과활동 40% + 전형적합성 10%)	

※ 수능최저학력기준: 지역인재전형(국어, 수학(가), 영어, 과탐(1과목) 4개 영역 등급의 합이 6이내)

2021학년도 수시모집 일정

주요사항			일정
인터넷원서접수			9. 23.(수) 09:00 ~ 9. 28.(월) 18:00
서류제출			9. 23.(수) 09:00 ~ 10. 6.(화) 18:00
1단계 합격자발표	학생부교과	군사학과전형	10. 8.(목)
		일반전형(의예과)	10. 30.(금)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11. 20.(금)
		소프트웨어전형	
면접고사	학생부교과	군사학과전형	10. 26.(월) ~ 10. 28.(수)
		일반전형(의예과)	11. 7.(토)
		일반전형(사범대학)	
	실기/실적	실기전형(음악교육과)	
	학생부종합	일반전형	12. 5.(토) ~ 12. 6.(일)
		소프트웨어전형	
실기고사	실기/실적	실기전형	11. 14.(토)
		특기자전형	
합격자	발표		12. 27.(일)
	등록		12. 28.(월) ~ 12. 30.(수)
추가합격자	발표		2020. 12. 31.(목) ~ 2021. 1. 4.(월)
	등록		2020. 12. 31.(목) ~ 2021. 1. 5.(화)
합격자 최종 등록금 납부			2021. 2. 8.(월) ~ 2. 10.(수)

※ 전형일정은 우리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우리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지

가정의 달 맞아 '치과 의료봉사'

조선대학교 치과병원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5월 15일에 가톨릭 광주교구 사회복지회가 설립한 비인가 대안학교인 '행복학교 36.5'의 학생 및 보호자 13명을 대상으로 나눔 치과의료봉사를 진행했다.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의료봉사단과 전공의, 치과대학 의료봉사 동아리인 가톨릭 학생회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이번 의료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찾아가는 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방역과 안전을 고려하여 치과병원 내 일차구강진료실을 이용하여 구강검진, 치석제거를 포함한 치과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치과의료봉사를 계기로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의료봉사단과 치과대학 가톨릭 학생회는 행복학교 36.5와 지역사회의 구강보건 증진에 함께 노력하고, '교육과 의료'라는 나눔의 가치를 함께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계활동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치과병원 의료봉사단은 매년 이동치과진료 버스를 운영하여 장애우, 노인환자, 이주민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펼치고, 의료사업지원을 통해 국내외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간 이식으로 새 생명… 감사 뜻 담아 발전기금 전달”

김종중 명예교수, 1000만 원 발전기금 기탁

조선대병원이 김종중 조선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로부터 조선대병원 발전후원금 1000만 원을 기탁받았다.
김종중 명예교수는 2017년 당시 조선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최남규 교수로부터 간 이식 수술을 받고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역 내 우수한 장기이식 의료진과 실력을 갖춘 조선대병원에 감사의 뜻을 담아 병원 발전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서 김종중 명예교수는 “수도권을 방문하지 않아도 조선대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조선대병원의 발전을 기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역 의료를 이끌 병원 신축에 도움”

유재원 명예교수, 발전기금 5000만 원 기탁

유재원 명예교수

조선대병원이 유재원 조선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로부터 조선대병원 신축 발전 기금 5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조선대병원 정형외과 과장, 진료부장, 척추 전문 센터장, 조선대 의과대학장을 역임한 유재원 명예교수는 개원 49주년을 맞이한 조선대병원의 신축을 위해 5000만 원을 기탁했다.
그는 “광주·전남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조선대병원이 향후 개원 50주년, 100주년까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병원을 신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 외국 학생 및 동·서구 이주여성에 마스크·손소독제 전달

조선대병원이 지난 5월 1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선대학교 외국인 재학생 및 광주시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조선대병원 대외협력실은 조선대학교 국제협력팀과 광주 동구·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학생 및 이주여성을 위해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조선대병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과정에서 지역 내 많은 기관으로부터 후원의 손길을 받았고, 그 정성에 보답하고, 지역 내 외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동참하고자 이번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전달식을 가졌다.

대장암·마취 적정성 평가 ‘1등급’

조선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표한 ‘대장암 및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으로, 이 중 대장암은 암 사망률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구화된 식습관 및 흡연과 음주의 증가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대장암 평가 지표 중 ▲전문인력 구성 여부 ▲수술 전 정밀검사 ▲항암화학요법 시행률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의료계 전체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조선대병원은 심평원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마취 적정성 평가 역시 1등급을 획득했다.
조선대병원은 마취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조 지표(시설·인력 등) ▲과정 지표(안전관리 활동) ▲결과 지표(마취 중·후 환자 상태)에 대한 이번 평가에서 의료계 전체 평균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

방사능 사고 시 신속한 의료 대응

조선대병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으로 선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누출사고 등으로 피폭환자 발생 시, 현장 응급진료 및 피폭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전국 권역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국가방사선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최근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더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해 기존 23곳 외 진료기관 8곳을 추가로 지정했으며,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포함됐다.
조선대병원은 이번 지정으로 ▲방사선피폭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진료 ▲응급 환자 이송 ▲방사선비상진료교육 참여 ▲방사능오염 환자의 진료, 후송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주요 호흡기 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

조선대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실시한 호흡기 질환 관련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심평원은 호흡기 질환의 진단 및 치료과정을 평가하여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 질환을 대상으로 의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조선대병원은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에서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환자비율 등에서 검사, 치료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 1등급을 획득했으며, 천식 적정성 평가 역시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여 최종 1등급에 선정됐다.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도 ▲전문인력 구성 ▲림프절 절제 시행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시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점수를 획득하며 암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와 뇌사 장기 기증 MOU 체결

조선대병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5월 21일 조선대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뇌사 장기 기증자 관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효율적인 뇌사자 관리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협약식에는 정종훈 조선대병원장과 조원현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뇌사 추정자의 적극적인 발굴과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뇌사 장기 기증자 이송 없이 신속한 뇌사판정 및 효율적인 관리 수행 ▲기증을 위한 의료정보 취득의 보장, 진료 행정 지원 협조 ▲뇌사 추정자 이송 필요시 적극 협조키로 했다.
조선대병원은 2019년도 뇌사 장기 기증 10건을 진행하면서 전국 의료기관중 7번째로 많은 기증을 진행했다. 조선대병원은 이번 협약으로 전남지역의 장기기증 활성화와 관련 의료체계가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백년대계의 밑거름이 되는 발전기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소식입니다.

박승권 유성 선병원 진료과장 |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 장학금 1000만 원 기탁

4월 3일 조선대학교는 의과대학 동문인 박승권 유성 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진료과장으로부터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 받았다.
박승권 동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재학시절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학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학시절 지도교수의 도움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박승권 동문이 기탁한 장학기금은 의과학분야 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연구·장학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평생 보은(報恩)하며 살겠습니다."

박승권 유성 선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진료과장 수기

제 나이 스물두 살, 의학과(본과) 1학년 당시는 살면서 인생에 대해 가장 깊이 생각한 시기였습니다. 불행은 겹쳐온다는 말처럼 어려워진 가정형편, 성적에 대한 압박감 등 안 좋은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절 괴롭힐 때였죠. 마치 세상이 "이래도 버틸 수 있겠어?"라면서 절 밀어내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시련이었고 휴학계를 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짐도 다 싸 놨던 찰나였습니다. 교수님 한 분이 주변 교수님들과 함께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제게 건냈습니다. '휴학만은 재고하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받은 도움은 훗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답하면 좋겠다'고 편지도 쓰셨습니다. 교수님의 은혜로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휘청거리던 저를 '큰 사람'이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매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견뎌낼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준다'는 말이 어쩌면 진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선대학교를 졸업한 지 올해 10년이 되었고, 현재 의사이자 사랑스러운 두 딸의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의사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교 발전기금 기탁의 뜻을 보일 때마다 주변에서는 '열심히 더 모으고 더 크게 성공해서 하라'고 말했지만 도움을 주셨던 교수님들이 모두 현직에 계실 때 마음을 표하고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일을 실천하고 나니 지금은 정말 뿌듯합니다.

제 전공은 직업환경의학과입니다. 산재를 입은 분들을 뵙고 치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1위이며 가장 장시간 일하는 나라입니다. 상상하기도 힘든 수준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시절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에게 제가 받았던 따뜻한 손길을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저는 대학시절 다소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즐거웠던 추억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학과 대표, 학생회 활동도 했었고, 동아리 생활도 열심히 했어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대학시절은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후배들이 대학생으로서 해 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경험하여 인생에 남을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길 바랍니다.

씨엔지바이오(주) | '선취업-후학습'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씨엔지바이오㈜ 이재강 대표가 5월 14일 조선대학교와 선취업-후학습 인재양성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씨엔지바이오㈜는 '사업보다 사회와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을 모토로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이다.
업무협약 및 발전기금 기탁식은 이날 오후 2시 조선대학교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약식에는 씨엔지바이오㈜ 이재강 대표와 이대희 회장, 조선대학교에서는 민영돈 총장과 김종경 미래사회융합대학장, 김봉철 대외협력처장, 조삼래 대외협력 부처장, 미래사회융합대학 휴먼융합서비스 학부 이규봉 교수 등이 참석했다.
조선대학교와 씨엔지바이오㈜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협력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에 대한 조선대학교 가족회사 선취업 연계 협력 ▲선취업자에 대한 재직자 교육 훈련 지원 협력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위한 정보교류 협력 ▲기타 관련 분야에 대한 상호 협의사항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기탁된 발전기금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 발전을 위해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인재 발굴 및 양성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씨엔지바이오㈜ 이재강 대표는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의 평생교육체제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나정상회(주) | 발전기금 500만 원 기탁

광주의 유명 외식업체인 나정상회(주)가 조선대학교에 대학 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기탁했다.
조선대학교는 4월 9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나정상회(주) 나승현 대표와 조선대학교 민영돈 총장, 이민창 기획조정실장, 김봉철 대외협력처장, 김종경 미래사회융합대학 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나승현 대표가 이날 기탁한 발전기금은 조선대학교 미래사회융합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선취업·후학습 진흥을 후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나정상회(주) 나승현 대표는 "조선대학교가 지역을 선도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기탁 소감을 말했다.

발전기금 신규 약정자 (2020. 4. ~ 2020. 6.)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재)조대의대동창회 장학재단 하충식 이사장	(재)조대의대동창회장학재단	200,000,000	200,000,000
(재)조선대학교치과 대학교육문화재단	(재)조선대학교치과대학 교육문화재단	32,000,000	1,808,885,500
(주)누리미디어	(주)누리미디어	684,690	2,463,618
(주)사이플러스	(주)사이플러스	700,000	6,600,000
(주)삼정건축사사무소	(주)삼정건축사사무소	5,000,000	9,000,000
(주)이준시스템	(주)이준시스템	494,165	494,165
강성권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3,300,000	8,184,000
강성승	공과대학	4,050,000	7,566,000
강은실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800,000	4,743,600
강인호	법사회대학	1,000,000	12,201,200
강혁신	법사회대학	1,000,000	20,592,800
강현철	공과대학	500,000	5,410,800
강희숙	글로벌인문대학	1,000,000	7,786,400
계축문화사	계축문화사	400,000	400,000
고광선(대호산업㈜)	대호산업㈜	3,000,000	3,000,000
고문주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5,668,000
고언숙	글로벌인문대학	2,000,000	3,200,000
고영엽	의학전문대학원	3,000,000	3,000,000
고용희	외국어대학	1,000,000	8,535,600
고진석	공과대학	600,000	7,720,800
국중기	치과대학	500,000	4,851,200
권상로	법사회대학	300,000	15,593,600
권영섭	공과대학	1,200,000	14,608,400
권용만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5,311,200
기광서	사회과학대학	1,000,000	19,946,800
기성환	약학대학	1,000,000	8,403,600
김경수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9,238,400
김경순	경상대학	200,000	2,441,600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김계하	의과대학	500,000	3,329,200
김광섭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900,000	900,000
김남권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2,100,000	5,146,800
김대현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	5,682,800
김대현	공과대학	1,000,000	4,183,600
김도경	치과대학	500,000	5,054,400
김명식	법사회대학	500,000	16,936,800
김민성	사범대학	100,000	2,603,600
김법헌	법사회대학	500,000	2,500,000
김복희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4,340,800
김봉철	법사회대학	2,053,800	5,308,200
김삼철	의학전문대학원	500,000	620,000
김상훈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	4,523,600
김석원	의학전문대학원	300,000	8,082,800
김선영	사범대학	100,000	4,813,600
김선우	사범대학	150,000	250,000
김성준	공과대학	150,000	150,000
김성홍	공과대학	500,000	5,080,800
김세진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3,338,000
김시욱	공과대학	500,000	8,224,800
김영일	사범대학	300,000	2,263,200
김옥선	글로벌인문대학	2,000,000	6,246,800
김용섭	법사회대학	6,000,000	9,046,800
김용재	공과대학	500,000	4,682,800
김윤신	의과대학	5,000,000	39,291,200
김윤학	IT융합대학	500,000	2,982,800
김은영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	4,766,800
김재형	법사회대학	3,000,000	23,806,770
김정연	사범대학	300,000	3,140,400
김정현	경상대학	300,000	3,541,600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김종구	법사회대학	500,000	14,180,400
김종현	공과대학	1,000,000	1,840,500
김지현	사범대학	500,000	7,272,000
김진선	의과대학	500,000	7,046,800
김진숙	법사회대학	1,000,000	3,482,800
김진원	공과대학	600,000	3,954,400
김진홍	사범대학	100,000	3,140,400
김춘성	치과대학	500,000	4,851,200
김충원	IT융합대학	500,000	5,211,200
김태훈	공과대학	500,000	1,792,400
김판구	IT융합대학	500,000	4,761,200
김현우	교육대학원	500,000	2,982,800
김형기	공과대학	2,000,000	3,780,800
김형중	글로벌인문대학	300,000	3,036,000
김혜영	사범대학	1,200,000	7,646,800
김흥중	치과대학	500,000	13,461,200
나만균	공과대학	1,000,000	4,891,200
나장함	사범대학	100,000	2,841,200
나정상회(주)	나정상회(주)	5,000,000	5,000,000
노성희	기초교육대학	1,000,000	2,000,000
노영기	기초교육대학	1,800,000	1,800,000
장은선	더비틀즈	600,000	600,000
류소연	의과대학	500,000	7,943,600
류시천	미술체육대학	1,000,000	4,939,600
명노준	사범대학	100,000	3,400,000
문경래	의학전문대학원	800,000	15,668,000
문덕현	공과대학	500,000	2,100,000
문정민	미술체육대학	1,000,000	7,076,800
민경혜	연구처	1,200,000	8,723,600
민영돈	조선대학교	4,903,680	90,486,480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민진영	경상대학	100,000	2,263,600
박도헌	미술체육대학	600,000	3,780,800
박상순	총무관리처	1,729,200	18,829,200
박상준	공과대학	400,000	3,001,600
박설현	공과대학	500,000	2,741,600
박성주	대학평의원회	600,000	600,000
박승권	유성선병원	10,000,000	10,000,000
박영신	사범대학	800,000	3,841,600
박정래(파이어케미칼㈜)	파이어케미칼㈜	5,620,120	5,620,120
박정환	의과대학	1,000,000	6,560,800
박 종	의과대학	1,000,000	12,311,200
박종락	공과대학	1,000,000	17,443,600
박종철	경상대학	500,000	3,023,600
박진성	공과대학	700,000	5,685,600
박현주	사범대학	400,000	5,246,800
박홍수	미술체육대학	500,000	8,582,800
박희서	법사회대학	1,000,000	4,831,200
반성범	IT융합대학	500,000	3,651,200
방일수	치과대학	500,000	3,651,200
배상현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15,624,800
배영주	사범대학	100,000	2,603,600
서덕희	사범대학	100,000	2,603,600
서영환	미술체육대학	600,000	6,440,400
서 현	사범대학	100,000	2,760,800
석주연	사범대학	1,200,000	6,082,800
설헌영	글로벌인문대학	1,000,000	20,761,200
송경오	사범대학	100,000	2,682,800
송창순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5,390,800
송채훈	미술체육대학	1,200,000	6,204,000
송희상	의과대학	300,000	3,160,800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신문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17,866,800
신병철	의학전문대학원	100,000	5,836,000
신송엽	의과대학	1,000,000	5,640,800
신영숙	IT융합대학	1,200,000	7,640,400
신용진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9,438,400
신종호	공과대학	1,000,000	1,000,000
신혜정	글로벌인문대학	200,000	2,556,800
심재홍	IT융합대학	300,000	3,451,200
안규백	공과대학	500,000	7,300,000
안동규	공과대학	600,000	3,543,600
안영준	사범대학	100,000	4,243,600
안영준	의학전문대학원	500,000	8,851,200
안용덕	미술체육대학	500,000	6,084,400
양성태	의과대학	300,000	300,000
오동렬	사범대학	1,300,000	6,741,600
오윤경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	5,918,000
우은란	약학대학	100,000	16,704,800
유선경	치과대학	300,000	3,208,800
유영태	공과대학	1,000,000	7,968,000
유정아	사범대학	1,000,000	9,081,600
유진철	약학대학	500,000	14,824,800
윤오남	체육대학	2,010,720	10,161,920
윤효진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4,824,800
이경숙	취업학생처	2,400,000	7,712,400
이경진	공과대학	600,000	4,201,600
이계만	법사회대학	1,000,000	23,034,400
이계원	경상대학	1,000,000	95,508,000
이계행	미술체육대학	1,200,000	4,316,000
이관규	사범대학	100,000	2,941,200
이금화	약학대학	300,000	1,502,400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이대용	경상대학	1,850,910	10,218,910
이민창	법사회대학	7,924,740	21,918,340
이상우	글로벌인문대학	500,000	8,354,400
이상원	인문과학대학	500,000	3,546,800
이승명	의학전문대학원	5,000,000	9,801,600
이영록	법과대학	200,000	15,486,800
이영선	법사회대학	1,300,000	3,703,600
이원재	약학대학	1,000,000	15,577,200
이인화	공과대학	500,000	6,931,600
이재강(씨엔지바이오)	(주)씨앤지바이오	10,000,000	10,000,000
이재기	사범대학	1,200,000	7,646,800
이재준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3,736,000
이정선	글로벌인문대학	300,000	300,000
이정아	IT융합대학	10,000,000	13,624,800
이정애(외식그룹진밭)	외식그룹진밭	3,000,000	3,000,000
이정화	사범대학	500,000	2,741,600
이종국	공과대학	1,850,910	7,782,510
이종대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3,482,800
이주민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600,000	2,524,800
이중헌	공과대학	2,000,000	11,781,200
이지은	사범대학	100,000	2,363,600
이창재	경상대학	300,000	1,186,000
이철갑	의학전문대학원	3,000,000	53,088,735
이철승	글로벌인문대학	500,000	13,586,000
이청호	경상대학	500,000	13,920,000
이충규	IT융합대학	500,000	3,060,800
이희영	공과대학	300,000	300,000
임미선	중앙도서관	3,000,000	7,862,000
임정혜	글로벌인문대학	1,000,000	4,363,600
장경현	사범대학	1,200,000	5,922,000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장상국	법사회대학	700,000	13,000,000
장숙진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	8,338,000
장완식	공과대학	600,000	23,881,600
장우식	공과대학	300,000	300,000
장인홍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6,454,400
장지영	의학전문대학원	1,000,000	5,326,800
장해춘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500,000	12,085,600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1,000,000	2,000,000
전선향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200,000	1,200,000
전영남	공과대학	500,000	4,485,600
전택중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300,000	3,253,600
전현수	미술체육대학	300,000	300,000
전희정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3,779,600
정경훈	공과대학	500,000	5,031,600
정명훈	공과대학	300,000	300,000
정상화	공과대학	800,000	5,831,600
정성배	법사회대학	1,000,000	1,000,000
정세민	공과대학	1,200,000	9,566,400
정윤태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4,272,090	10,896,890
정은희	사범대학	300,000	5,243,600
정의상	글로벌인문대학	1,000,000	4,151,200
정일용	IT융합대학	500,000	16,038,400
정진철	경상대학	1,500,000	4,443,600
정현숙	IT융합대학	400,000	3,240,400
조광원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500,000	3,582,800
조광희	사범대학	500,000	16,610,800
조동렬	글로벌인문대학	500,000	7,964,000
조승제	경상대학	1,000,000	9,448,000
조완주	미술체육대학	600,000	600,000
조태오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900,000	4,740,400

성명	소속	약정금액(원)	개인별누계(원)
조형훈	치의학전문대학원	300,000	900,000
조홍현	공과대학	1,500,000	6,903,600
조 훈	공과대학	2,900,000	6,154,400
조희정	사범대학	1,200,000	6,160,800
주경희	경상대학	3,000,000	3,000,000
지병근	법사회대학	12,000,000	26,560,800
차승기	글로벌인문대학	500,000	3,660,800
차희정	글로벌인문대학	500,000	3,263,600
채수학	총무관리처	3,600,000	6,708,000
최광석	IT융합대학	500,000	3,754,400
최나래	동문(군사학부)	1,000,000	1,000,000
최영주	글로벌인문대학	500,000	3,236,000
최우열	IT융합대학	300,000	300,000
최은순	사범대학	100,000	200,000
최은주	약학대학	800,000	8,041,600
최진규	글로벌인문대학	1,000,000	4,938,400
최태진	공과대학	300,000	2,380,800
최한철	치과대학	500,000	5,456,400
최홍엽	법사회대학	3,000,000	18,816,400
표화영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1,000,000	3,560,800
한길영	공과대학	700,000	6,884,000
한순미	부설연구소	1,000,000	1,000,000
한인섭	법사회대학	1,000,000	4,046,800
한지영	법사회대학	1,000,000	13,566,000
허유성	사범대학	300,000	2,703,600
홍성금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2,400,000	8,446,800
홍태희	경상대학	1,000,000	4,560,400
황석승	IT융합대학	300,000	2,882,800
황윤용	경상대학	1,924,740	4,868,340
황혜정	사범대학	100,000	3,720,000
	합계	518,469,765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참여 안내

기금을 보내주신 분께는

- 500만 원 이상 출연하신 분들의 성함을 우리 대학교 명예의 전당(본관 중앙 현관)에 새겨 그 뜻을 기립니다.
- 우리 대학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에 소개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부여하는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기금을 출연하신 분은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조선대학교에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연간 소득액 100%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법정기부금의 세액 공제는 기부금을 납부한 해로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부(개인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 2천만 원 이하는 기부금액의 15%,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소득세법 제34조)

개인기부(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

- 개인사업자가 기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

법인기부(주식회사, 법인 단체)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 후)의 50%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제24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조선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약정서를 다운로드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약정서를 송부하실 수 있습니다.
- 약정하신 금액은 일시 납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기부자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현금, 현물, 주식, 부동산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금 납부 방법

- 전화, 우편, 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전화/주소/담당자 이메일)
- 조선대학교 홍보팀에 방문하여 직접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062-230-6234 / ghgwon@chosun.ac.kr)
- 아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신 경우, 조선대학교 홍보팀으로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은행 004-127-007929 (예금주: 조선대학교 발전기금)

지역과 함께 100년, 학생과 함께 미래로!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_ www.chosun.ac.kr